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24호

Tuesday May 21, 2024 A

호건, 선거 필승 키워드는 '인종' ?

"흑인 후보 만나 100% 승리"
"민주당 흑인 후보 엄중 백인 결집"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메릴랜드 연방상원 예비경선은 결국 인종별 투표 양극화 현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흑인 여성 안젤라 울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는 전체 54%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흑인 다수 거주지역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는 74%와 찰스 카운티에서는 64%를 기록했다. 경쟁자인 데이빗 트론의 연방 하원의원 제6지구에 해당하는 몽고메리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도 50%를 득표했는데 유색인종 비율과 동일한 것이다.

반면 백인 남성 트론은 백인 다수 거주 지역인 프레드릭 카운티 등 서부 메릴랜드 지역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기록했다. 또한 백인이 우세한 세실, 캐롤라인, 쿤 앤스, 탈봇, 도체스터, 워체스터, 위코미코, 소머셋 카운티 등 이스턴 쇼어 지역에서 승리했다.

공화당의 래리 호건 전 주지



래리 호건

VS



안젤라 울소브룩스
(24 상원의원 후보)



벤 질러스
(18 주지사 후보)



앤소니 브라운
(14 주지사 후보)

사는 62% 득표율로, 도체스터, 가렛, 위코미코 카운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이들 세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가 강한 곳으로, 로빈 피커 후보가 승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세가 호건 전 주지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지난 2014년 주지사 선거에서 51.03%를 득표해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후보 앤소니 브라운 부지사는 47.25%를 득표했을 뿐이다. 흑인남성인 브라운은 연방하원의원을 거쳐 현재는 메릴랜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호건 주지사는 이

전 선거보다 더 높은 55.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상대방도 흑인남성인 벤 질러스 후보였다.

호건이 상대했던 브라운과 질러스는 민주당 내에서 신성으로 떠오르는 인물로, 메릴랜드 민주당이 정치적 검양을 앞세우며 뽑은 흑인 후보였다. 하지만 메릴랜드 민주당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백인 계층은 흑인 후보 대신 호건을 지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호건 전 주지사가 중도 외연 확장이 뛰어난 이유를 뛰어난 친화력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인종 키워드를 배제하기 힘들다.

메릴랜드 백인 민주당 유권자들이 서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백인 유권자와 달리 아직까지 인종적 정체성을 훨씬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투표성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호건의 상대방이 더군다나 여성이기 때문이다.

호건 전 주지사는 아시안 부인을 내세워 5% 이상의 유권자 파위를 지닌 아시안 커뮤니티를 마진 캐스트 보팅 역할로 활용한다면 필승카드가 될 수도 있다.

김은혜 기자

이란 대통령 사망, 중동 먹구름 (에브라힘 라이시)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이란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하던 중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사고를 당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지역 성직자 등 사고 헬기에 탑승한 9명 전원이 숨졌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헬기가 노후 기종이었다는 점과 악천후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이란 당국이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공식 확인하자 국제 사회가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러

운 중동 정세가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란 내부적으로는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 다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헌법(제131조)은 대통령의 유고 시 제1부통령(총 12명)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5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하마드 모흐베르 제1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임시 수행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85세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유력한 승계자로 강력하게 거론되던 두 명 중 한 명인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란 정세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차남인 고위 성직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최고지도자 후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란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형수-임주리 기자

» 8면 '중동 요동'으로 이어집니다



20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발리야스프 광장을 가득 메운 라이시 대통령 추도 인파. [AP=연합뉴스]

은퇴 한인들, 한국으로 떠난다

SPECIAL STORY

한국 은퇴자 주택 개발 활발
보증금·월 기본 생활비 내야

한국은 소위 '경제력을 갖춘' 시니어들 사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은퇴단계에 진입

한 베이비부머 세대다.

출산 인구는 급감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대형 건설사, 금융업체, 제약사들까지 실버타운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건설업계는 '100세 시대 최고의 노후 주거지'를 표방하며 60~80세 은퇴자를 위한 실버타운 개발 속

도전에 나섰다. 한국 실버타운은 주거, 여가, 의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2000년대 초부터 미래 사업으로 주목받아왔다.

실버타운 업계는 한때 분양사기, 부실 운영, 과장 광고, 부동산 투기에 부도 도미노를 겪으며 잠시 침체를 겪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호텔 같은 고급 생활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급부상하며 다시 실버타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만 소유 및 거주로 제한된다. 인기 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은영 기자

» 5면 '실버타운'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손금 아기 물받지 팔기
• 보석 채굴,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AmTrust FINANCIAL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SCAN ME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보험
BY SOLOMON AGENCY

703.639.0882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반기 든 개딸 달랜 이재명 ... '중도층 딜레마' 깊어진다

추미에 탈락에 1만명 '탈당 러시' 당원 일각 "조국당으로 갈아탈 것" 이 "당원 의사 반영 비중 높으겠다" 전문가 "대선 승패는 중도층에 달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가 황 비대위원장에 박수를 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추미에 국회의원 무산'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했다. 지난 16일 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뒤 시작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은 '문자 폭탄'을 넘어 '탈당 러시'로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현재 탈당 신청이 1만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밝히는 당원도 적잖다.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이기도 했던 강성 당원, 즉 '개딸'(개혁의 딸)이 이 대표 체제를 흔드는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당 지지율도 흔들렸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지난 13~17일 성인 2002명 대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한 34.5%였고,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오른 35.0%였다. "당원의 권한을 두 배로 늘

리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달래기에도 성난 당심(黨心)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진 의원은 "탈당하는 것

과 당을 갈아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탈당 처리를 일주일 정도 보류한 뒤 다시 의사를 묻는 절차를 만들겠다"(김지호 부대변인)는 응급 처방까지 꺼냈고, 강성 당원들에게 내줄 '당근'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의사가 50대50 비율로 반영된다. 심지어 "(현재 의원단 투표로 진행되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뜻을 최소 10% 반영해야 한다"(김민석 의원)는 주장까지 나온다. 같은 날 윤종균 당선인 등 당직자 출신 초선 당선인 5명도 "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했다.

'추미에 탈락' 직전까지 있었던 중도층 공략 논의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짜기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선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선 것 등이 대표적이다. 당 관계자는 "당분간 정책 우를릭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 정국 등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스윙보터(swing voter)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금 당장은 강성 당원의 입맛을 맞추려 하겠지만, 지방선거와 대선이 다가올수록 초점은 중도층 공략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국희 기자

"김정숙 인도 방문 우리가 먼저 검토" 외교부 '문 회고록' 배치된 입장 밝혀

"인도측, 초청장 보낸 것은 그다음" 문 회고록선 "모디 초청으로 성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이 먼저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이와 배치되는 설명을 내놨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측은 2018년 11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 정부는 "여타 외교 일정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 장관의 참석이 어렵다고 인도 측에 통보했다. 그러자 인도 측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차 초청했다. 정부는 문체부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의 설명에 인도 측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즉 인도 측은 해당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고, 이후 우리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 중임을 밝히자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김 여사 관련 예산은 "주관 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지출했다"며 외교부 출장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설명대로라면 애초에 인도 측은 해당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외교장관을 초청했으며 이후에 우리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과는 배치된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은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의 방문을 제안했다. 예비비 4억원을 줄속 편성한 타지마할 헬세 관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맞섰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모디 총리가 허황

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렵고 사했다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독 외교가 아닌 단독 외유"라고 비난했다. 현예슬 기자

전공의들 "전문의 취득시점 중요치 않다" ... 복귀시한에도 4.6%만 출근

정부 호소에도 복귀 움직임 적어 "중환자·응급실 인력수급 큰 타격" 정부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렇다 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인턴·레지던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빅5 소속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21% 수준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했다니 출근 중인 레지던트 수는 600여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의 4.6%에 그치는 미미한 규모다. 내년 전문의 진입을 앞둔 고연차(3~4년 차, 총 2910명) 전공의는 미수련 기간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 '빅5' 병원 4년 차 전공의 A씨는 "사직서

를 낸 순간 감수한 것"이라며 "사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졸국(의국 졸업)이나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은 복귀에 영향이 없다"라며 "웬만한 전공의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온

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20일 복귀시한은 의미 없다. 어차피 나중에 수련 규정을 고쳐줄 것" "전문의 취득은 늦어져도 의사 자격은 그대로"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내년 전문의 배출이 중단된다면 "인력 대체가 어려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과목이나 중환자실·응급실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혜선·남수현 기자

워싱턴 날씨 (°F)

22일(수)	87-68	☀️	25일(토)	74-64	☁️
23일(목)	85-67	☁️	26일(일)	72-64	☁️
24일(금)	84-68	☀️	27일(월)	79-68	☁️

5월 21일(화) 82~6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www.Intelisystems.com 703-337-0123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연방정부 건물 관리비 5년새 88% ↑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워싱턴DC를 포함한 전체 연방정부 부처 본부 건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2017회계연도 260억달러에서 2022회계연도에 490억달러로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GAO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렌트한 건물의 실제 이용률은 25%에 불과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점점 더 많은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GAO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 구입과 유지를 위해 과도한 세금이 집행될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도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불필요한

불필요한 건물 계속 소유-렌트



건물 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구조조정한다면 연간 수천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SA 자료에 의하면 연방국무부와 국방부 등 규모 24위 이내 연방정부 부처가 보유한 빌딩은 25만채로, 실내 면적만 24억 스퀘어피트에 이른다. 이 빌딩에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 지출예산

은 160억달러로, 이용률로 계산할 경우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1950년대와 1960년대 정부 계획에 의해 건설하거나 구매한 것으로, 오랜 연한으로 인해 현대적 설비 리모델링도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건물을 매각하고 현대적인 건물에서 최정에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이 예산감축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공공건물서비스위원회(PBSC)와 연방정부소유건물개혁위원회(PBRB)가 연방조달청(GSA)가 소유한 연방정부 부처 본부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정부 부처 본부 건물의 실제 이용률이 12%에 불과했다. 김옥채 기자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생명 살리는 자연음식' 박송희 원장 초청



박송희 원장과 이태미 이사장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 KACAF) 산하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KCAA)가 지난해에 이어 생명을 살리는 자연음식 요리 연구가 박송희(21세기 자연음식연구원) 원장을 초청해 '생명을 살리는 음식' 강의를 진행한다.

내달 20일부터 7월20일까지 열리는 수업에서는 자연 친화적 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한식, 궁중 음식, 사찰 음식, 남도 발효음식, 전통 발효장, 김 부각 만드는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박 원장은 다음달 8일(토), 메릴랜드 인디언 헤드 소재 빌리지그린 파크에서 개최하는 제18회 아태문화축제 '아리랑 코리아'에서 김치전, 야채전, 떡볶이, 오뎅, 비빔밥 등을 선보이는 한국식 포장

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송희 원장은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지난해 아카데미 수업에 참여했던 미국인이 한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까지 찾아와 무척 보람있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한식 알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미 이사장은 "예술문화로서 한미 양국이 교류하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발전, 계승하기 위한 다음세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가족의 소중함 느꼈어요"

워싱턴청소년재단 가정의달 행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범수 목사)은 지난 18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사진앨범 만들기 및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가졌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소재 재단 교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학생 28명이 참여해 전문가와 멘토링 시간을 갖고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 앨범을 만들었다. 이날 멘토링에 나선 레베카 김 변호사는 "미래의 꿈을 이루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꿈은 그 마음속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

를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항상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이사장은 "학생들이 가족사진 앨범을 만들며 함께한 오늘의 시간들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영어와 수학을 중

점으로한 가을 방과 후 수업 조기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방과 후 수업(과외 프로그램) 과목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SAT를 교육하고 있다. >문의: 240-722-7198, wyf7408@gmail.com >주소: 7408 Muncaster Mill Rd, Gaithersburg, MD 김윤미 기자

"쇼핑가서 운동도 한다"

온라인 쇼핑몰 대응, 피클볼 코트 마련



오프라인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갈수록 방문객이 줄고 있는 가운데, 자구책의 일환으로 스포츠 시설을 마련하는 곳이 늘고 있다.

버지니아 매나사스 시시에 위치한 매나사스 몰은 버지니아 지역 쇼핑몰 최초의 피클볼 실내 코트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피클볼 경기장 체인 락 당커를 유지해 모두 6개의 실내 코트를 마련했다.

피클볼은 탁구와 테니스를 접목한 운동경기로, 팬데믹을 전후해 인기가 급상승해 프로리그가 출범하기도 했다. 시간당 이용료는 회원의 경우 7.50달러, 비회원은 15달러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쇼핑몰이 쇼핑과 식사, 음주, 여흥의 공간을 넘어서 스포츠 등 새로운 컨셉으로 작동해야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쇼핑몰의 앵커 스토어 역할을 담당하던 대형백화점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자구책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매장의 입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락 당커는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 등의 쇼핑몰에 피클볼 코트를 입점시켰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DC 대학졸업예정자 신규 일자리 인기

워싱턴DC 연방정부 취업을 원하는 대학졸업예정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사이트 핸드셰이크에

따르면 워싱턴DC는 뉴욕시에 이어 인기 2위 지역으로 부상했다. 올해 대학졸업예정자의 75%가 연방

정부에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5.5%였다. 올해에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의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건축, 교육, 농업, 제조업 분야의 지원이 늘었다.

취업 지원자의 60%는 임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34%는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될 것을 걱정했으며 61%는 번아웃 사태를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

다. 절반이상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업무를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11일부터 24일까지 올해 616개 대학졸업예정자 26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옴니와 함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3 - 6/7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아시아나 합병 미국 승인도 눈앞”

우기홍(사진) 대한항공 대표가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미국 측의 승인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경영진이 미국에서의 합병 검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대표는 지난 17일 중앙일보와 만나 “사실상 (합병에 대한) 승인이 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합병 관련 마지막 절차가 남은 미국의 경우 법무부(DOJ)가 소송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현재 양사의 합병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승인을 마친 상태다. 미국의 경우 정확히는 승인 개념보다는 합병 절차 검토 종결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국 당국의 심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법무부(DOJ)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우 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 대표는 최근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복수 입찰자가 참여하는 등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두 회사가 모두 운영 중인 인천-유럽 노선 4개를 신규 항공사에 넘기고, 아시아나의 화물기 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결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본입찰에는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 저가 항공사(LCC) 3곳이 참여했다. 이들이 제출한 인수 희망 금액, 자금 마련 계획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계획이다. 또 인천-파리를 비롯해 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취항을 준비 중이다. 박영우 기자

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콘트라코스타서 2년전 발생 가해 경관 총격 전력 등 비수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사진)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



티 수피리어범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가 범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라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

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텔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쏘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장열 기자



19일 LA한인타운 거주마켓 3층에서 비영리단체 ‘아시아안정건강프로젝트(Asian Mental Health Project)’의 주최로 이달 초 LA경찰국(LAPD) 경관 총에 맞아 숨진 정신질환 한인 남성 양용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 주민이 화분을 들고 찾아와 양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만취·마리화나 과속운전 사망사고 한인 기소

술과 마리화나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과속으로 몰다 1명을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시카고 인근의 글렌뷰 경찰국에 따르면 마더스데이였던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이스트레이크 애비뉴와 미도우 레인 교차로에서 2021년형 포드 머스탱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세단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직후 세단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충격은 컸다.

사고로 세단 차량 운전자인 고교생 마코 니케틱(17)은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한 니케틱군의 여자친구와 머스탱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머스탱은 도로변 주택 담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머스탱 운전자는 김태형(21·사진)씨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치 이상인 0.88로 확인됐다. 또 혈액검사에서는 마리화나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김씨는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120마일로 과속 운전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한인 교장·교육구 상대 소송 학생 측 9만달러 보상 합의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하게 놀림받고 폭행을 당했다며 한인 교장과 교육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9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하고 합의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범원에 따르면 LA통합교육구 소속 캐스파드 포틀라 중학교(타자나 소재)에 재학중이던 ZS(현재 17세)양이 2021년에 제기한 소송이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 측의 합의에 따라 17일 종결됐다.

ZS양의 가족은 2021년 당시 제니퍼

유 교장과 LA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교 측의 과실, 부실 채용, 훈련과 관리 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가족은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2만7545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입주비 비싸도 식사·의료·여행 등 풀서비스

▶1면 '실버타운'에서 이어집니다
▶분양 vs 임대

2022년 기준 한국 실버타운은 전국 39곳으로 8840가구 정도다.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실버타운 비용은 입주 시 전세 개념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이외 매월 식비, 관리비, 생활비가 들어간다.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해 현재 분양형은 2015년 이전 설계됐다. 의료, 문화,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복지주택 개념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가깝다. 광고두산위브, 수지광고산아이파크, 블루밍더클래스 등이 해당한다. 15일 원·달러 환율 기준 분양형 실버타운 보증금은 13만~33만 달러, 월 관리비 170~440달러, 월 생활비 740~975달러 수준이다.

임대는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천차만별이다. 저가형 실버타운은 월명성모의 집, 일봉실버랜드, 미리내실버타운, 공주원로원 등 거의 10여곳이다. 보증금은 2만6000~11만 달러, 월 관리비 550~1100달러, 월 생활비 665~1100달러다.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강서·분



한국 고급 실버타운계의 스카이크레슬러는 '더클래스500'의 내부공간(왼쪽)과 중가형 실버타운인 더시그림하우스의 건물 외관(오른쪽). [각 웹사이트 캡처]

당·가양을 비롯해 노블레스타워, 마리 스텔라, 유당마을, 더시그림하우스 강남·청라 등은 중가형이다.

보증금 7만4000달러~34만 달러, 월 관리비 770~1700달러, 월 생활비 1200~1750달러다. 최근 미주지역에서 공격적인 실버타운 마케팅을 하는 백운호수푸르지오를 포함 더클래스 500, VI라우어, VI르웨스트, 삼성노블카운티 등은 대표적인 고급형이다. 보증금은 33만~66만 달러, 월 관리비 1100~3000달러, 월 생활비 2000~5000달러로 비싸다.

지난달 한국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년 만에 폐지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그동안 임대 분양만 가능하고 일반 분양이 불가능했다. 또 고령층의 생활 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

▶장단점
입주자에게 식사, 객실관리, 건강검진, 편리한 의료시스템, 레저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에 한식 식사제공, 24시

간 간호 시스템, 한국어 소통, 호텔 수준 서비스 등이 매력적이다.

실버타운의 최대 장점은 음식 제공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양을 고려한 식사는 노년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단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 정해진 식비를 내야 한다. 하루 세끼 월 90식이 의무적인 곳도 있고 20식~60식까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노인 전용 거주시설인 실버타운에서는 외모를 틀이 없다. 실버타운이 동호회, 공연, 여행 등을 제공해 주거지 안에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의 낙원

인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고액 입주비는 최대 단점이다. 주택가격 수준의 비싼 보증금에 일반 아파트보다 월세나 관리비가 비싸고, 일부 레저타운은 추가 서비스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고려사항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위치, 대중교통, 병원 위치, 가족과 접근성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내게 필요한 노년 생활 필수 서비스를 파악하고 실버타운을 찾아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실버타운 비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헤리 정 한바다부동산의 대표는 "K푸드, K방역 등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살기 좋아지면서 한국 거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미주 한인 유치를 위해 일부 실버타운은 생활비 할인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2년 정도 살아보면서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은영 기자

전기차 구매 의향 3년만에 첫 감소

가격·충전 문제로 3%p 줄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비율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24 전기차 구매의향(U.S. Electric Vehicle Consideration)'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very likely)고 답한 소비자는 24%로, 1년 전의 26%에서 2%포인트 감소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대체로 있다(overall likely)'고 답한 비율은 올해 58%로, 작년의 61%에서 3%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신차 구매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2021년 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JD파워는 전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중에 저렴한 차량이 별로 없다는



테슬라 모델 S

점과 충전 인프라 부족, 작년보다 하락한 유가, 고금리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충전소 부족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응답자들의 52%가 지목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매일 출퇴근 시간이 편도 46~60분인 소비자 중 전기차 구매 고려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같은 그룹의 작년 응답 비율보다 13%포인트나 감소했다.

아울러 JD파워는 전기차 구매할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츠, 전기 렌트카에 개스비 부과 논란

렌트카업체 허츠가 전기차를 빌린 고객에게 주유비를 부과해 논란이다. 자동차전문매체 더드라이브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조수아 이씨가 최근 LA 지역에서 주말 휴가를 보내고 허츠에서 렌트한 테슬라 모델 3를 반납한 후 277.39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렌터카 계약시 주유를 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이씨는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 잔량을 차를 인수할 때와 같은 96%를 유지한 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츠의 전기차 재충전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잔량에 상관없이 반환할 경우 최대 35달러, 상용고객인 골드플러스 회원은 25달러가 부과되며 렌트 전후 배터리 잔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없다. 따라서 재충전 비용이라 할지라도 277.39달러 추가 요금 부과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직원 실수라고 생각한 이씨가 이메일로 문의 하자 허츠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요금 조정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 계약서에



개스 주유 옵션이 추가된 것은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더드라이브는 허츠가 전기차에 재주유비를 부과한 것과 재주유 서비스가 제공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277달러면 LA의 비싼 개스값이라도 46갤런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허츠 골드플러스 프레지던트 서클 회원인 이씨는 지난 8일 "3차례 허츠 직원과 통화했는데 요금 부가가 합법이라며 매우 무례했다. 보유 차량에 대해 잘 아는 허츠팀이 테슬라 모델 3에 개스를 채우는데 277달러가 든다고 하면 그런 거다. 아마도 허츠만 아는 비밀 연료탱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허츠 측은 더드라이브에 "이씨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청구를 환불해 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고 밝혀왔다. 박낙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목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증시 약세론 고수, 모건스탠리 '백기' 트럼프, 바이든 떠난 경합주 무슬림표 '흡수'

증시 약세론을 고수해왔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주가지수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내년 6월 전망치를 5,400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 주가지수(17일 종가 기준 5,303)에 견줘 약 2% 높은 수준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S&P 500 지수의 2024년 말 전망치 4,500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들어 미 경제의 연착륙을 기정사실로 하며 미 증시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해 온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며 미 증시 약세론을 고수해왔다.

윌슨 CIO는 19일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의 경우 기업 평가치 배수의 완만한 놀림과 함께 견조한 기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전망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배우 커진 상황에서 거시적인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표적인 약세론 진영이었던 모건스탠리의 주가전망 상황에 따라 주요 월가 IB 가운데 증시 비관론을 고수하는 금융사는 JP모건체이스 등 일부만 남게 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서고 있는 무슬림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경합주의 무슬림 유권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스라엘 지원에 불만을 품고 ‘바이든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이 최신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4월28일~5월9일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위스콘신 등 5개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랍 출신 및 무슬림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57% 대 25%로 크게 앞섰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를 안겼던 유권자 군(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대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결과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슬림표를 ‘줍



줍’(적은 노력이나 대가를 들여서 공짜로 얻다시피 한다는 의미)한 게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미시간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출구조사 결과 무슬림 투표자의 94%가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바이든 지지세가 강했던 무슬림 표심의 동요 현상은 일찌감치 감지된 바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선 유권자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트럼프 지지’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이 NYT-시에나대의 최근 조사 결과였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

쉬 로킨은 20일 칼럼에서 이 같은 경향과 함께, 이런 흐름을 타며 대선 승리를 거머쥐려는 트럼프 진영의 노력을 소개했다.

아랍계 미국인 선거자금 기부자들과 행동가들이 오는 21일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주의 오클랜드힐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책사로 꼽히는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가 주도한 만찬 행사에 참석한다고 로킨은 전했다.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대선 격전지의 무슬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 중 하나인 이 만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위인 마이클 블로스(티파니 트럼프의 남편)와,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도 참석한다고 로킨은 소개했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민간인 희생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마약한것 같다’ vs ‘부정부패’ 아르헨·스페인 외교갈등 고조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외교 갈등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면서 스페인 정부가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아르헨티나 대사를 조치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의 ‘유럽 비바 24’ 행사에 초대된 밀레이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사회주의를 비난하면서 스페인 총리 내외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심각한 외교 결례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밀레이 대통령은 좌파 정치인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이 부정부패했으며, 산체스 총리는 이 때문에 총리직 수행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데 5일이 걸렸다고 비꼬았다.

이에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장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면서 “외교 관습과 국가 간 공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깼다”고 비난했다.

그는 밀레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스페인인의 주권과 존엄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스페인 정부는 아르헨티나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으며, 스페인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사를 조치해 향의했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주의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파도를 타고 서핑하면서 아르헨티나로 돌아왔다”고



스페인 극우 복스당이 19일 개최된 극우 행사 ‘유럽 비바 24’에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조롱 수위를 더 높였다. 현재 스페인 여당은 사회노동당이다.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과는 스페인 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지난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스페인이 상대 후보인 세르히오 마사를 지지한 것과 스페인 교통부 장관이 최근 밀레이 대통령 후보 시절 동영상에 “약을 한 것 같다”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자국을 방문한 밀레이 대통령이 극우 행사에서 총리 내외를 모욕한 것은 양국의 오랜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스페인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간주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발언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 국내에서도 그의 언행을 비난하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우크라 앞으로 몇주·몇달 중요”

우크라이나 연락회의서 발언

로이드 오스틴(사진) 국방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 “앞으로 몇주, 몇달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영상으로 개최된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결기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의 대공세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차례 기로에 선 현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의회가 6개월간 표류했던 608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을 의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재개됐지만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공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생존과 성공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유럽의 안보, 세계 안보,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며 “만약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독재자들은 이웃 주권국가를 침략·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이상 해고’ 칼바람에 떠는 테슬라 직원들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대규모 해고를 한 달 넘게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매일 불안에 떨며 출근하고 있다고 언론이 20일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지난달 중순 이후 한 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테슬라에서는 여전히 해고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의 이번 해고가 적어도 오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번 해고 규모가 테슬라 전체 인력의 20%에 달할 것이



라고 전한 바 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전 세계 테슬라 사업장의 직원은 총 14만명이었다.

머스크는 아직 직원들에게 감원 절차가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았고, 회사 측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당사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있

어 직원들은 매일 아침 불안에 떨며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해고된 테슬라의 전 영업부 직원 마이클 미니크는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링크트인에 “공과금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매일 직장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불확실성의 회색 구름이 갇힌 뒤 숨을 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한 직원은 이런 분위기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의 게임에 참가해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이스라엘 연루 증거 없지만... “친이란 세력 충분히 자극”

하마스 “이란과 완전한 연대” 성명
미 국무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사망으로
이란 정계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사사 확인된 20일 테헤란에서 이란 긴급 내각회의가 열렸다. 내각 회의실엔 고인의 사진과 함께 대통령석에 검은 천이 둘러졌다. [로이터-연합뉴스]

▶ 1면 ‘중동 요동’에서 이어집니다
외신들은 8개월째 접어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역대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라이시의 죽음이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친(親)이란 세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달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포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과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對)이스라엘 강경론자인 라이시 대통령이 사고를 당했다

는 점에서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라이시의 죽음은) 친이란 세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은 이를 명분 삼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고 직후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서 우리는 이란과 그 지도부, 정부 및 국민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상황을 주시하는 건 미국이다. 사고 직후 백악관은 조지아주(州)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 국무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러시아와 이웃 중동 국가들은 사고 직후 신속한 지원과 연대 표명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구조 요원 50명가량을 이란에 급파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신속 대응 위치 서비스’를 가동해 이란 정부를 지원했다. 이란과 중동 맹주 자리를 두고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도 지원과 연대의 뜻을 밝혔다.

박형수 임주리 기자



20일(현지시간) 이란 북서부 산악 지대에서 발견된 사고 헬기의 잔해. [AFP-연합뉴스]

“이란 대통령,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대신 받는 희생양”

라이시 사망으로 본 이란 권력구조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을 계기로 이란 특유의 정치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와 라이시 대통령의 관계,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55)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인구 9000만 명의 이란에선 권력이 성직자·정치인·군대 사이에 불투명한 방식으로 분산된 듯 보이나 주요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최고지도자다. 지난달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에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한 사람도 하메네이였다.

가디언은 “이란에서 대통령직은 최고지도자가 비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희생양 역할을 맡는다”고 전했다. 라이시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하산 로하니도 그런 역할을 했다.

최고지도자 선정은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80~90대다. 이란 성직자들은 여성의 역할 축소, 하급 의무화, 음악 제한, 음주 금지 등 문화·사회 문제에 중점을 둔다. 역사적으로 성직자

들은 부유한 시장 상인과의 유대를 통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하메네이의 주요 기관이다. 육·해·공군·쿠드스군·바시민병대 등 약 25만 명으로 구성된 IRGC는 중동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쿠드스군은 레바논 헤즈볼라뿐 아니라 예멘 후티반군, 이라크 시아파 전사,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저항의 축’ 세력에 훈련과 장비를 제공한다.

국내 정치에선 반대파 감시·탄압도 맡는다. 그래서 IRGC를 “그림자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란이 지난

달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란이 적대행위 확대를 꺼린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를 소환한 것은 이란 외부부가 아닌 IRGC였다.

이란 상황에서 라이시는 전 정부 수장들과 달리 최고지도자와 IRGC에 도전하지 않았고, 하메네이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

그 덕에 하메네이의 유력한 후계자가 됐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인기가 없었다. 집권 후 40%가 넘는 인플레이션, 자국 통화 약세 등이 인기가 없는 요인이다.

라이시의 사망으로 최고지도자 지위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백일현 기자

라이칭더 “양안관계 현상 유지할 것”

총통 취임... “중국 위협 멈추라” 호소
중국이 금기하는 ‘독립’도 언급해

라이칭더(賴清德·65)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통일을 서두르는 중국에 굴복하지도, 과도하게 독립 노선을 추진해 도발의 구실을 만들지도 않겠다는 임기 4년의 집권 기조를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9시쯤(현지시간) 총통부에서 취임 선서 직후 제 1야당인 국민당 소속 한귀위(韓國瑜) 입법위원장(국회의장)으로부터 중화민국 인장과 훈장에 날인하는 옥으로 만든 도장인 영전지새(榮典之璽)를 건네

받았다. 라이 총통은 취임 연설을 통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정책과 관련해 “양안의 미래는 세계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화된 대만을 계승하는 새 정부는 평화의 조타수로서 ‘네 가지 견지(四堅持)’를 지키며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전임 총통이 2021년 건국기념일에 밝힌 ▶자유민주적 헌정체제 ▶대만·중국 서로 존속 불가 ▶주권 침해, 합병 불가 ▶대만 국민의 뜻에 따른 미래 결정 등 ‘네 가지 견지’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중국에 호소한다”며 “대만에 대한 말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총통 취임식에서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라이칭더 신임 총통(오른쪽)이 차이잉원 전 총통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과 무력 위협을 멈추고 대만과 함께 대만해협 및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해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취임사의 키워드는 ‘대만’과 ‘세계’였다. 각각 87차례와 42차례 언급했다. 차이 총통이 12기 취임사에서 각각

대만을 41·47회, 세계를 4·11회 언급했던 것보다 2~4배 더 강조한 셈이다. 중국이 금기시하는 ‘독립’이란 단어도 한 차례 썼고, 과거 취임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전쟁’도 여섯 차례나 등장해 엄중한 대만해협 주변의 안보 현실을 알렸다.

특히, 라이 총통은 인공지능(AI)·무인기(드론)·우주·해양을 신정부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실리콘 섬’이란 기초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대만을 ‘인공지능(AI)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가람 호서대 교수는 “실무적인 대만 독립운동가”라는 라이 총통의 별명에 걸맞은 취임사”라며 “지난달 미국 의회가 대만 군사지원을 명기한 법안을 통과시킨 걸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대비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네티즌의 취임사 접근을 차단한 중국은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어떤 간판, 어떤 깃발을 쓰건 ‘대만 독립’ 분열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빈화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대만지역 지도자의 연설은 완고하게 ‘대만 독립’ 입장을 견지했다”며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행동도 우리는 결코 용인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이날 “대만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보잉의 방위산업 부문(BDS)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며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견제했다. 미국 측에선 이날 취임식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브라이언 디스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료들이 참석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직구 장벽 높이는게 기업보호? 경쟁력 키우게 규제 풀어야

국경 없는 온라인 쇼핑의 시대 중국업체, 싼값 무기로 한국 공략 국내 업체는 의무휴업 등에 발목 "기업이 체력 키워 경쟁하게 해야"

정부가 KC인증(통합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번복하면서, C커머스(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국내 유통산업 대응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통산업계에선 국경 없는 커머스 시대에 산업 경쟁력이나 해외 직구의 소비자 편익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시효가 지난 대형마트 규제도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성장을 모두 놓친

것처럼,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대통령실은 정부의 'KC미인증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대해 "국민계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가 KC인증이 없는 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30대 주부 이모씨는 "유아용품 살 때 백화점은 쇼핑처럼 이용하고 더 싼 가격에 해외 직구를 할 때가 많다"며 "소비에 국경이 사라진 지는 오래"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같은 물건이어도 국내에서 수입해 판매하면 가격이 2~3배 뛰는 유통 구조는 왜 들여다보지 않는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외 직구가 문제가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많이 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이 문제"라며 "그동안 국내 유통업체가 마진을 이렇게 많이 붙였구나 하는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수입상은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유통 채널에 수수료도 줘야 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정 사무총장은 "시장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격과 안전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 제조·유통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때 받을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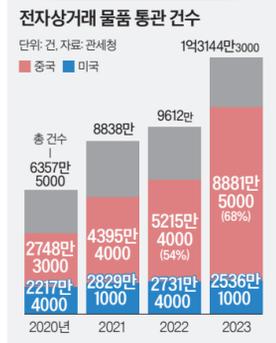
에 대한 고민도 정부는 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 리테일 테크 도입 등 유통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산업의 지형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온라인 업체가 한국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지정, 새벽배송 금지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폐기될 처지다.

해당 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2년 제정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유통산업

의 핵심축인 대형마트의 시장 경쟁력을 퇴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5년 새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점포 수는 각각 11개, 10개, 14개 줄어 들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마트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국경을 막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내 기업이 체력을 키울 수 있게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외국 기업과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경·이수정 기자



정부는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방안'을 발표할 뒤 서울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구구매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있다.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구구매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있다.

2018년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진출
2023년 7월	테무 한국 진출
10월	알리익스프레스 'K배뉴' 신설
2024년 2월	알리익스프레스, 월간이용자 수 2위
5월 13일	공정위, 알리·테무와 제품 안전협약 체결
5월 16일	정부, 80개 품목 국내 안전인증(KC인증) 없는 경우 해외 직구 원천 금지 방침 발표
17일	정부, 안전인증 없는 80개 품목 직구 금지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19일	정부, KC미인증 직구 차단 방침 철회
20일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 80개 품목 KC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오세훈, 한·유·나 한꺼번에 비판... 잠룡 경쟁 불 붙인 '직구'

(한동훈·유승민·나경원)

오 "정책 지적, 중진들 처신 아쉽다" 정책 혼선 비판한 차기주자들 공격 유 "직구금지 시대착오 발상" 반격 추경호는 "여당 패싱"에 불만 토로

차기 대권을 향한 여권 잠룡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비켜서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정부의 '해외 직구구매(직구)' 정책 혼선 논란과 관련해 규제 방침을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한 당권 주자들에게 각을 세운 것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여당 중진은 직구 규제를 비판한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앞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나경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 (유승민), "적용 방식이 모호해 과도한 규제가 될 것" (한동훈)이라며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의 비판은 유 전 의원과의 설전

으로 이어졌다. 유 전 의원이 이날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즉각 되받아차자 오 시장도 2시간 만에 "여당 의원이라면 패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야당보다 더한 야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에 4시간 뒤 유 전 의원이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직구 금지 주장이 맞다면 저에게 시비걸 게 아니라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비판하라"며 "당정 관계니, '야당보다 더한 야당'이란 감정적 언사로 논점을 이탈하고 프레임 바꾸려 하지 말라"고 맞섰다.

오 시장의 공세 이후 여권에선 "차기

경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엔 나 당선인과 유 전 의원,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전 전 위원장까지 등판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목격담 정치'로 물밑 홍보를 이어온 전 위원장이 지난 19일 직구 규제 비판을 고리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하는 나 당선인은 최근 공개 행보를 잇따라 하고 있다. 그가 16일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 현역 의원과 당선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유 전 의원도 최근 팬클럽 미

팅을 하고, 대학가를 돌며 '보수의 가치'를 강연하고 있다.

한편 여권 원내사령관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이튿날 "군기반장"을 자처하며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김호중 출국금지... 이원석 “음주은폐 엄정대응하라”

(검찰총장)

소속사 대표·매니저까지 출국금지
김호중, 23~25일 공연도 강행할 듯
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법 건의”



음주 운전 사실을 사고 열흘 만에 시인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씨가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경찰 요청에 따라 김씨와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한 매니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본부장, 사건 은폐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힌 김씨 소속사(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서울 강남

구 신사동 거리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 도주치상 등)를 받고 있다. 음주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김씨는 19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직전까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술의 종류와 음주자 체중 등을 이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음주 상태 및 사고와의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그간 사고 당일 김씨의 행적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동석자 및 업소 종업원 등으로부터 김씨의 음주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김씨 소변에서 음주대사체(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도 받았다.

경찰은 김씨 신병 처리는 수사 상황을 보며 결정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곧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일정을 조율해 확정할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씨는 계획된 공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공연계에 따르면, 오는 23~25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주관하는 D사는 주최 측인 KBS의 출연자 교체 요청에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주관사 측은 촉박한 일정과 거액의 환불금 문제 등을 불가 이유로 들었다. 티켓은 15만~23만원이며, 매진될 경우 티켓 매출만 4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운전자 바뀌지 ▶계획적 허위 진술 ▶

진상 은폐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과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또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적발을 면하려고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인데, 형량은 음주증거부죄와 같다.

이보람·정혜정·김지혜 기자

서울대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피의자 모두 동문

얼굴사진 합성, 음란물 만들어 유포

학교 후배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만 적어도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도 서울대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40대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

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피해자가 운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만 12명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인 A씨는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다. 그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A씨의 얼굴을 넣어 합성한 수십장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대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소셜

미디어(SNS) 등에 프로필로 사용한 사진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일 박씨를 체포했고, 혐의를 추궁한 끝에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제작에도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어른 된 날 남기고파 제62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전통 성년례' 행사가 20일 대전시 동구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계례(여자가 머리를 풀고 쪽을 찌어 비녀를 꽂는 의식)와 관례(남자가 상투를 틀고 관모를 쓰는 의식)를 마친 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인허가 기대” vs “협의를 먼저” 현대차·서울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건설 갈등

기존 105층 초고층 타워건설 무산
55층 2개동 변경안도 서울시 반려
현대차 조감도 공개...시, 불평 기색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에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

55층 타워동 2개를 짓는 설계안이 담겼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감도는 높이 242m의 55층 타워 2개 동과 전시·문화·편의시설로 운영될 저층부 4개 동으로 이뤄졌다. 타워동은 신재생에너지·탄소배출 저감 등 친

환경 기술 및 자율주행·로보틱스·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건물 인프라와 융합된 하이테크 업무 시설로 건설된다. 그룹 주요 계열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타워동 상층부에는 강남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호텔이 각각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 베드이자 글로벌 기업·전문 컨설턴트·스타트업 등 입주 기업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층부 4개 동은 코엑스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한강으로 이어지는 북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감도. [사진 현대차그룹]

합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한다. 설계는 영국 포스터 엔 파트너스가 맡았다.

은 당초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를 짓겠다고 했지만, 건축비 상승과 실용성을 이유로 55층 타워 2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달 초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55층 설계안을 사실상 반려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조감도 공개에 불평한 기색을 내비쳤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 약속을 바꾸려면 현재 시점에서 주변 경관과 환경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는 게 상식”이라며 “일방적인 조감도 공개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와 서울시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조감도는 서울시 설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강기현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영시니어, 연금 3종세트 최대 수혜... “한국서 가장 부자세대”

(국민·퇴직·개인연금)

한국 소비지도 바꾸는 86세대

새로운 플랫폼 배우는데 적극적인 연금 등 여유바탕 ‘파워 컨슈머’로 “몸도 건강...70살까지 일할 것”

1967년생 이수남(57)씨는 지난해 말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다. 요즘은 아내와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즐기며 한숨 돌리고 있다. 이씨는 “퇴직한 친구와 종종 만나 운동하고 은퇴자로서 노하우를 나눈다”며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하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강화자(58)씨는 자신을 ‘시니어’(고령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강씨는 “옛날 58세는 노년이었겠지만 지금 나는 중년의 막바지라고 생각한다”며 “외모상으로도, 건강 상태를 봐도 할머니가 되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가 새로운 ‘파워 컨슈머’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만 55~64세(1960~69년생)인 이들은 약 86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18%)을 차지한다. 이들은 ‘고령자용 축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적 정년(만 60세)을 넘겼거나 곧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젊고 건강하며 구매력이 있는 ‘영시니어(Young Senior)’로 주목받고 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60년대생은 교육 수준이 높고 급변하는 사회를 겪었으며 디지털 문화를 경험한 세대”라며 “과거 노인은 ‘앞



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면 이제 ‘686(6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된 이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접하고 배우는 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시니어가 된 이들의 구매력과 시장에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여유를 가진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들이 앞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일보는 이들 860만 영시니어의 수입·지출과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

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55~64세(1960~69년생) 남녀 317명 대상 설문조사(신뢰수준 95%)를 했다. 또 대한상의와 함께 마케팅 리서치기업 칸타 월드패널에 의뢰해 2018~2022·2023년에 실시한 만 55~64세 1000가구의 소비생활 설문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86세대인 영시니어는 여전히 현역이었다. 조사 대상 중 은퇴자(45.5%)보다 직장생활 중이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55.5%)가 더 많았다. 경제활동 중인 60년대생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801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퇴 등으로 현재 무직인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85만5000원이었다. 소득 출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소득(45.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예·적금 등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20.6%), 자녀 등이 주는 용돈(14.7%),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14.5%) 순으로 나타났다. 199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70%, 보험료율 3%(근로자 부담분 1.5%)로 설정돼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수혜를 이 세대가 가장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전쟁 직후 태어난 60년대생은 급격한 경제 발전과 호황기를 경험하며 자산을 형성한 세대로 기존 고령층보다 안정된 직업, 높은 학력 수준을 갖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일찌감치 은퇴 계획을 세우고 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의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3종 세트(국민·퇴직·개인연금)를 탄탄히 갖춘 영시니어는 기존 고령층과 확연히 대비되는 신(新)소비자다. 자신을 시니어(고령층)로 분류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왕성한 경제·사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자부한다.

이번 설문에서 따르면 이들 중 은퇴자의 60.3%가 단기 근로자, 정직원 등으로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재개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47.1%)이지만 일하는 즐거움(34.1%)을 꼽은 경우도 많았다.

이영진(61)씨는 “아직 몸도 건강하고 한창이기 때문에 70살까지는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월평균 지출 생활비를 집계한 결과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317만1000원, 은퇴자는 20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족 부양에 드는 지출은 전체의 4분의 1(24%)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29.7%)은 미취업 자녀인 캣거루족을 키우고 있었고,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37.9%로 조사됐다.

은퇴자의 가족 부양 부담도 작지 않았다. 은퇴자의 21.3%는 자녀를, 32.6%는 부모를 부양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부양하는 미취업 자녀 중 20대는 56%였고, 30대도 36.7%로 나타났다.

영시니어는 생활품 외에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품목별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식비(현직 38%, 은퇴자 36.7%) 비중이 가장 컸고 생활필수비(20%, 20.3%), 문화·여가·통신비(19.4%, 18.7%), 병원·의료비(10.5%, 15.55%), 뷰티·의료비(9.1%, 6.1%) 등이 뒤를 이었다. 은퇴자의 경우 현재 소득 있는 영시니어에 비해 전체 지출에서 식비와 뷰티·의료비 비율이 2~3%p 낮지만, 병원·의료비 비율은 5%p가량 높았다. 김보화(60)씨는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친구와 여행을 다닌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김 팀장은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 세대가 55~64세 일 때보다 86세대 영시니어는 더 건강하고 활기차다”며 “구매력, 자산, 체력을 다 갖춰 현재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분석했다.

김경마·이수정 기자

전통시장 찾는 어르신 세대? 쿠팡서 더 많이 산다

86세대 소비 행태 분석해보니

이전 고령층과 달리 모바일에 적응 장바구니엔 신선식품보다 밀키트

‘어르신은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다’는 건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만 55~64세 가운데 전통시장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젊고 활력 넘치는 이들 ‘영시니어’는 스마트폰에서 쿠팡 앱으로 장을 보고 국거리 대신 밀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86세대의 수입·지출과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55~64세(1960~69년생) 남녀 317명을 대상(신뢰수준 95%)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86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구매 채널은 대형마트(52.4%)로 나타났고 온라인 플랫폼(17.7%), 수퍼마켓(10.1%), 창고형 할인마트(6.9%), 전통시장(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채소·정육 등 신선식품만 따로 놓고 보니 이 세대의 온라인 쇼핑 선호도는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신선식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산다는 영시니어가 16.4%로, 전통시장 이용자(13.9%)보다 더 많았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60년대생은 사회활동을 하며 디지털을 경험해 왔고 모바일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이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형마트 3사를 꺾고 유통업계 1위로 떠오른 쿠팡에 대한 영시니어의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 중앙일보가 대

한상의와 함께 마케팅 리서치기업 칸타 월드패널에 의뢰해 2018~2022·2023년에 실시한 만 55~64세 1000가구 소비생활 설문 자료를 분석해 보니, 식품·비식품군 통틀어 이 연령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중 쿠팡(37.6%)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 네이버쇼핑(6.3%)과의 격차는 30%p 이상이었다. 1967년생 이현숙(57)씨는 “쿠팡에 거의 모든 품목이 있는 데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자주 쓴다”고 말했다.

86세대 영시니어의 장바구니는 5년 전 시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와 크게 달랐다. 신선식품을 덜 사고 즉석식품(HMR, 가정간편식)을 자주 구매했다. 신선식품은 화당 구매액은 상승했지만, 연간 구매 빈도가 138회(2018년)에서 119회(2023년)로 19회 줄었다. HMR의 경우 즉석밥 외에 면, 국 등 기타 즉석식품 구매가 늘며 5년 새 월평균 구매액이 4만3657원에서 11만4460원으로 2.6배 이상 커졌다. 디지털 구매 지출도 늘었는데 커피에 쓰는 돈이 5년 전보다 78.1% 늘었고 음료(56.4%), 과자류(35%)에 대한 씬스 이도 커졌다.

김경마·이수정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참으로 어렵구나, '참꼰대' 노릇 하기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만 스승의 날이라는 다소 어색한 날도 있다. 직업적 '핀대'의 일원으로서 5월을 맞아 '핀대'에 대해서 생각한다. '핀대'란 무엇인가?

핀대라는 멸칭의 역사

동아일보 1961년 2월 10일 자 기사가 '핀대'를 '영감 걸인'이란 뜻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용례와 거리가 있다. 그 후 신문 지상에서 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다가 경향신문 1970년 11월 13일 자 기사가 선생의 멸칭으로서 핀대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다. 멸칭으로서 선생이라는 뜻은 오늘날 핀대 용례에도 들어 있으니, 적어도 반세기 동안 핀대는 그 기본적인 뜻을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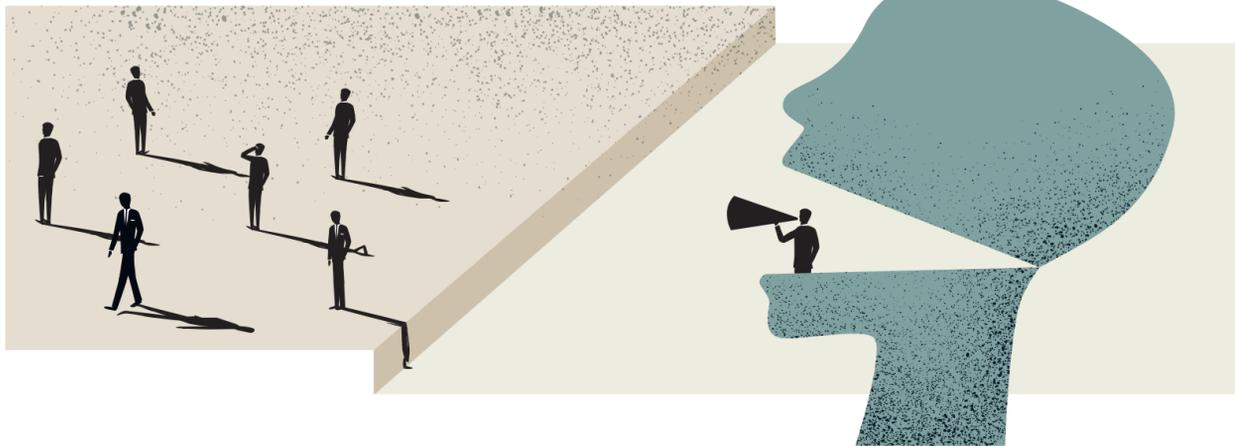
1974년 대학교수 소광희는 '어떤 시점에 설 것인가'라는 칼럼을 경향신문 5월 16일 자에 기고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기도 하려니와 학생들 자신마저도 이제는 선생의 인격적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 큰 녀석 보고 이래라저래라 해봐야 오히려 '핀대' 소리나 들었지 별수 없다."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다. 파생적 의미는 차치하고, 핀대의 기본 의미는 학생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선생(혹은 아버지)을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1982년 11월 14일 자 기사에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세대를 비꼰 때 핀대라 하듯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선생과 아버지를 넘어 세대 일반까지 핀대의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로 이 사회에는 핀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대 간 차이는 늘 존재하고, 남에게 (주제넘게)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말이다. 핀대가 많은 만큼 핀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핀대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핀대는 사라지지 않고 이토록 득실거리는지. 그 원인 중 하나는, '참핀대'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핀대'와 '참핀대'

핀대가 되지 않는 지름길은 학생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학생이 무슨 말을 하든 "과연 그렇군. 허허,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로 일관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적개심을 품지 않고, 자존심 '뿡'이 차오르며, 듣는 상대를 우군으로 간주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넘쳐나는 자신감을 에너지 삼아 차세대 핀대로 무럭무럭 자란다. 학생이 무슨 글을 쓰든 "멋진 글이군. 허허. 아주 훌륭한 글이었어"라고 일관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도 기분이 좋고, 자존심 '뿡'이 차오르며, 선생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의 글쓰기는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차세대 핀대로 성장해 간다.

핀대가 되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학생이 무슨 말을 하든 "또 개소리를 하는군. 자네는 말을 하는 건가, 짖어대는 건가"라고 폭언을 해대는 것이다. 학생이 무슨 글을 쓰든 "또 쓰레기 글을 썼군.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종이에 아니 노트북 키보드



세대갈등 심각한 지금 이 사회
핀대 넘쳐도 참핀대는 드물어
아부와 인기 대신 진리를 추구
핀대 확산 방지 위해서도 절실

에 죄를 짓는 일이야." "머리통은 야구모자 거치대가 아닐세. 생각이란 걸 좀 하게." 실로 과거 이 사회에 이런 핀대는 넘쳐났으며, 지금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핀대는 드물다. 저렇게 말 편치를 날린다고 참핀대가 되지는 않는다. 참핀대의 길은 사뭇 다르다.

참핀대는 학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이 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이 좀 있는 것 같네. 어떻게 하면 그 비약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를 판별하려면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참핀대는 경청하는 자이자 논리적인 자이다. 참핀대는 학생의 글을 읽고 이렇게 말한다. "청중과 논지와 구성과 문체가 따로 노는 것 같군요. 청중과 논지와 구성과 문체가 잘 호응하는 문체로 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조언을 하려면 학생의 글을 읽으며 그 글의 청중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논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구성을 판별해야 하고, 문체를 잘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참핀대는 상상하는 자이자, 논리적인 자이자, 판별하는 자이자, 감각하는 자이다. 그러나 참핀대가 되는 일이 쉽겠는가. 게다가 참핀대의 수업은 쉽지도 않고, 학점도 엄격하게 줄 터이니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도 어렵다.

진리가 중요한가, 인기가 중요한가

참핀대는 인기에 연연해서 젊은 세대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에게 아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이것은 다 기성세대 탓이다!"라고 (조용히 자책하는 대신) 대놓고 외치는 것이다. 자책의 포즈는 자만의 포즈보다 덜 재수없기 마련. 게다가, 젊은이 탓을 하지 않

니 젊은이 기분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참핀대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젊은 세대에게 아부하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 "학생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함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 우웩! 사람이야 일종의 부산물로서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사랑받기 위해 진리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참핀대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이지 인기가 아니다.

그러면 참핀대는 기성세대에게 아부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성세대의 비위도 맞추지 않는다. 기성세대에게 아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철없는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있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우리가 나서야 하오!"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난 세월을 헛산 것 같지도 않고 지금도 사회적 쓸모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성세대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핀대는 이런 길도 가지 않는다. 참핀대는 세대를 막론하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냉정하게 평가할 뿐이다. "누구든 타락할 수 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맛'이 갈 수 있다." 참핀대는 학생의 선택권 존중이란 명분으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학생에게 미루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의 타락이라고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만난 '참핀대'

미국에서 참핀대를 만나 본 적이 있다. 그는 학문적으로 엄격한 사람이었으나 학생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퍼진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앞에서 그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학생들에게 정도 이상으로 좋은 학점을 주는 일은 학생들에게 아부하는 짓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자기 상태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망가지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 학생들에게만 학점을 박하게 주면, 쉽게 좋은 학점을 얻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피해가 가지 않겠나." 이러한 고민 끝에 그 교수는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두 개씩 주었다. 하나는 성적표에 기재되는 좋은 학점, 다른 학점은 그들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 학점. 후자의 학점이 전자의 학점보다 낮았을 것은 당연하다. "성적표에 실린 학

점을 믿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원로나 어른이 되는 일은 참핀대가 되는 일에 비해 쉬운 것 같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저런 상을 얻거꾸 타거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규모 제자 그룹을 조직하거나, 큰 보직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원로나 어른 대접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도 아니라면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 유지를 잘하여 남들보다 아주 오래 살면 원로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참핀대가 되는 길은 험하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피평가자에게 아부하지 말아야 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감심장이어야 한다.

핀대의 재생산을 막으려면

그러니 이 사회에 참핀대가 없거나 드문 것도 이상하지 않다. 참핀대가 되는 일은 핀대가 되지 않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 참핀대가 없으면 뭐 어때냐고? 그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해 보라. 참핀대가 없으면 핀대를 '제대로' 미워하기도 어렵다. 오늘날 핀대를 미워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너무 쉽지 않은가. 자기 편견에 기대어 비방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적수가 강력해야 자신도 성장하는 법. 쉽게 나가떨어지는 이를 상대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자기반성과 자기 단련에 애슬 리 없다. 매번 승자가 되는 데 자신을 굳이 돌아볼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자신도 핀대가 되어 간다. 육체적 근살만이 아니라 정신적 근살이 늘어나고, 육체적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근육도 사라진다. 남는 것은 근거 없는 자존심과 세상 탓뿐이다. 근거 없는 자존심으로 날 탓하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바로 핀대 아니겠나. 이것이 바로 핀대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핀대가 끝없이 재생산되어 온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참핀대가 없으면 젊은 세대는 자신을 점검할 기회를 잃고, 예리한 비판의 날이 무디어지고,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그 자신 핀대가 되어 있지 않겠나. 핀대의 재생산을 막기 위하여 참핀대가 필요하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다디단’ 밤양갱

한동안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녔다. 감각적인 음률과 재미있는 라임 때문인지 입속을 맴돌던 노래는 바로 ‘밤양갱’이다. ‘밤양갱’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 요인 중 하나가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이라는 부분의 가사다. ‘달디달다’는 낱말이 일정한 자리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노래 부르는 재미를 한껏 북돋워 준다.

그런데 많은 이가 간과하는 것이 있으니, ‘달디달다’는 단어가 실은 바르지 못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매우 쓴 상태를 표현할 때 ‘쓰다’를 두 번 연이어 붙여 ‘쓰다쓰다’고 하는 것처럼, 매우 달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달디달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표준어는 ‘달디달다’가 아닌 ‘다디달다’이다. 발음을 부드럽게 하다 보니 ‘르’ 받침이 떨어져 나가 ‘다디달다’가 됐고, 이것이 표준어로 등재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발음을 부드럽게 하다가 ‘르’이 탈락하고, 그것을 표준어로 삼은 예는 ‘다디달다’ 외에도 여럿이다. ‘가을내→가으내, 겨울살이→겨우살이, 멀지않아→머지않아, 잘지다→차지다, 바늘질→바느질, 딸님→따님, 아들님→아드님’ 등이 있다.

따라서 ‘밤양갱’의 노랫말 중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은 “다디달고 다디달고 다디단 밤양갱”이라고 해야 맞춤법상 올바른 표현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2002년생과 졸업식



박낙희
경제부 부장

2002년생들은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됐다. 바로 가짜지구 전쟁에 대한 반전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교내 반전시위로 USC가 전체 졸업식을 취소하고 지난 8일부터 나흘간 단과대별 졸업식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반전시위의 진원지인 컬럼비아대학도 15일로 예정됐던 전체 졸업식 행사를 취소했다.

반전시위 캠프까지 들어선 UC버클리는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메모리얼 스타디움서 전체 졸업식을 강행했다.

6700여명의 졸업생과 축하객 2만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졸업식이 진행되는 듯했다. 돌연 졸업생 수십 명이 팔레스타인기를 들고 일어서 “팔레스타인 해방” 등 구호를 외치자 맞은편 축하객 중 일부가 이스라엘기를 펼쳐 보이며 긴장이 고조됐다.

진행을 맡은 서니 리 부총장 겸 학생처장은 “가짜지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졸업생들은 팬데믹으로 고교 졸업식도 못했다. 대학 졸업식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반전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졸업식

장을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시위대가 퇴장했다. 하지만 수분 뒤 다른 관중석으로 입장해 시위를 재개했고 가담자는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리 부총장이 “졸업생들의 노력과 결실을 축하해주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가족, 친지들의 졸업식 참관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축하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도 시위는 계속됐고 대학 측이 경찰이나 경비원들을 투입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2002년생들에게 있어 인생의 첫 번째 마지막일 수도 있는 졸업식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끝났다.

아무리 뜻이 좋으나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알리기 위해 타인의 인생 중대사에 재를 뿌린 셈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대학 측이 시위대에 졸업식의 일부를 할애한 만큼 시위대도 졸업생과 축하객들을 배려해 중단했다면 ‘반전’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프로농구(NBA) 사상 첫 흑인 여성 CEO인 신티 마셜 델러스 매버릭스 CEO의 후배들을 위한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옳은 일을 하라.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제 ‘공’은 여러분 손에 있다.”

겪지 않아도 될 이런저런 일들을 체험한 2002년생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역경 가운데 배우고 익혀 무장한 2002년생들이 ‘사회’라는 치열한 게임에 뛰어들어 손에 쥔 ‘공’으로 승리를 쟁취해 나가길 응원한다.

디지털 세상 읽기

테무와 알리바바



박상현
오테터 발행인

알리바바는 오래도록 중국 전자 상거래의 상징과 같았다.

바이두, 텐센트,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포진한 중국의 빅테크 산업계에서 알리바바는 징둥닷컴과 함께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을 사실상 개척하고 주도해왔다.

하지만 요즘 알리바바의 위상은 크게 변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 서비스 테무의 위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테무를 운영하는 기업 핀둬둬의 시가 총액이 알리바바를 제쳤다.

테무가 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 시가 총액 1위를 달성하게 된 비결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다.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과 유럽 등

무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대변하는 숫자일 뿐, 테무가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도 매출은 여전히 알리바바에 훨씬 못 미친다.

알리바바는 테무의 장점을 배워 반격을 준비하지만, 테무의 성장을 막는 건 업계 내 경쟁이 아닌, 미국과 EU의 무역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 테무가 이용해온 관세법의 구멍을 막으면 당장 이들 시장에서의 매출은 급감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규제는 테무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 중인 알리바바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을 넘어 유통의 거인이 되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허락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국제 정치적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more ▶ www.sk-pest.com

빈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Bank of Hope 와 함께 하는

43rd 중앙일보 Student Art & Video Contest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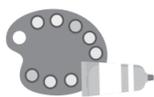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 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 제외 중복 입상 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 할인 없음)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영상 부문

- 참가대상 8 학년 ~ 12 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총 시상
241명

시상금
총 만불 이상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미술부문		영상부문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문)	시상금
대상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100명	상장	20팀	상장

*영상부문 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213-368-3723 (2577)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Sponsored by  Bank of Hope

Hosted by  The JoongAng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플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마감**
 자연이 만든 웅장한 알프스와 환상적인 자연을 품고 있는 스위스일주
8박 9일 6/18~6/26 \$3,990+항공

캐나다 록키 **마감**
5박 6일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8/14~8/19 (여름방학 특선)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액티브 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6박 7일 8/15~8/21 \$2,990(항공포함)

영국일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11박 12일 9/2~9/13 \$5,890+항공

정통 서유럽 **마감 임박**
10박 11일 9/10~9/20
 10/9~10/19 **마감 임박** \$3,490+항공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9/18~10/1 \$4,390+항공

파노라마 서유럽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 13일 9/20~10/2 \$3,890+항공

그리스 & 터키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 나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 11일 9/25~10/5 \$2,890+항공

독일 일주
 괴팅,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윈더플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고 윤태웅

5월의 추천투어

북유럽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 11일 6/28~7/8 \$5,290+항공

특전
 1. 헬싱키-스톡홀름 구간 발트해 실아라인 크루즈 포함
 2. 도심에 위치한 호텔 투숙으로 유식과 자유시간 만끽
 3. 게이랑에르 유람선 & 낭만의 플름 산악열차 모두 포함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 임박**
 리스본, 세비아, 지브롤터, 마하스,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10박 11일 10/8~10/18 \$3,190+항공

호주 & 뉴질랜드
 남태평양 최고 여행지,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남북섬을 동시에~
11박 12일 10/14~10/25 \$3,790+항공

프랑스 일주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
13박 14일 10/17~10/30 \$5,690+항공

2024 크루즈 여행

알래스카 **마감**
 \$1990~부터 (인사이드, 항공포함) 8/30~9/6 7박 8일

뉴잉글랜드 \$1190(인사이드) 10/17~10/26 9박 10일

남부 카리브해 \$1390(인사이드) 12/7~12/19 12박 13일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마감 임박**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가이드) 10박 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마감**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임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마감 임박** 10박 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 임박**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임박**
 10/14~10/25 호주 & 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 & 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역)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11/12~11/25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13박 14일(시내선)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 & 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경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탑여행사가 직접 모시고 떠납니다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안원마을 라만호텔 / 여수 소노캄 / 가제 소노캄
 부산 크렌도전진 / 경주 라만호텔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 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 5일 다낭 \$499+항공
 3박 5일 푸켓 \$599+항공 3박 4일 대만 \$690+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 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 4일 동경 \$999+항공 8박 9일 일본전일주 \$2690+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분검진) 한국국민권 \$700/미 \$750
 미국국민권 \$910/미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미 \$610
 삼성서울병원(기분검진) 남/미 \$100만원/미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분검진) 남/미 \$460
 원앤원병원(세브란스형/전체검진)

메모리얼 데이 특선

나이아가라 워터스글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행복 느낄 수 있는 여행!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레지워스 주립공원
 북아메리카 최대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안개속으로 탑승)
2박 3일 5/25~5/27 \$650

뉴욕 특선
 업그레이드된 디렉스 호텔, 브루클린 명소, 배스 허드슨 아드, 옛지 전망대
1박 2일 5/26~5/27 \$450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 특선**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라즈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매주 출발**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천성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매주 출발**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매주 출발**

성극 다니엘
\$199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동부 명소 핵심만 방문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매주 출발**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일매주 출발**
3박 4일 \$890+항공

캐나다 록키 **일매주 출발**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May 21,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5월이면 이미 12학년이 됐다

11학년생 대입 준비 킷오프 이제 11학년생이 최고 학년인 시즌이 이미 시작됐다. 명목상 12학년은 8월 중순에 시작되지만 실제 12학년은 이미 5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바로 5월 1일(올해는 15일)을 기해서 모든 합격생이 자신이 진학할 학교를 확정해서 대학에 통보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12학년은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 AP시험을 마치고 기말고사만 마치고 끝이기 때문이다. 라이징 시니어를 시작해보자.

여름방학엔 지원서 에세이부터
과외활동 기회 있으면 '무조건'
동기부여 위해 대학 탐방 좋아

11학년생에게 5월과 6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계획을 잘 세워 여름방학을 잘 마치면 이어지는 가을학기에서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원서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을을 우습게 알면 큰 코를 다친다. 미국이 기회가 많은 나라지만 대입에서는 한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다.

▶로드맵부터 그려라

방학 계획 우선 현재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자녀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학부모도 눈을 잃고 있으면 대입 원서 제출이 끝나는 12월에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매년 수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이미 5월이 시작됐고 AP시험 준비도 마쳤을 것이고 기말고사도 곧 지나간다. 그러면 6월이다. 이는 방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6월에 가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나서는 자녀를 두고 바서는 안된다. 물론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전생애 나라를 구한 부모들만의 특권이다. 아쉽지만 부모 스스로 되돌아 보라.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잘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나. 그러므로 로드맵을 우선 그려보라. 가장 가까운 방학 계획을 세워라. 이제까지 노력이 500이라면 이제부터의 노력도 500이다.

▶6월 본격적 대입 시작: 희망대학 찾기

6월부터는 시작되는 대입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희망대학 선정이다. 이제까지 대학 선정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드림스쿨(리치스쿨), 매치스쿨, 세이프티스쿨로 나누는 것이다. 우선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이 SAT/ACT점수를 표준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잠깐동안 이 표준시험 점수가 무시됐지만 변별력을 보고 우수학생을 찾으려는 대학들은 표준점수를 다시 대입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마다 등록학생의 성적 분포점수를 공개한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적 기준으로 100명이라면 1등부터 25등, 25등부터 75등, 75등 이하로 나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성적이 1~25등 사이이면 세이프티스쿨, 25~75등이면 매치스쿨, 75등 이하면 드림스쿨이 된다. 전문가들은 3:3:2의 비율을 권장한다. 만약 20개 학교에 지원한다면, 7.5곳: 7.5곳: 5곳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마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인 성적만 살펴본 것이고 여기에 과외 활동, 수상 경력, 에세이 등이 더해져야 한다.

캘리포니아 한인 학생을 기준으로 따져보자. UC 9개 캠퍼스를 보면 자녀들의 GPA를 근거로 나눠볼 수가 있다. UC는 표준시험 점수를 받지 않으므로 더 어려워지지만 GPA가 기준이 되고



11학년생에게 5월은 실제로는 12학년이 되는 시즌이다. 11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여름방학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다. [명덕컴 copilot생성]

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학교는 버클리/UCCLA이고 이어서 SD/데이비스/SB/어바인으로, 마지막으로 리버사이드/샌타크루즈/머시드로 나눈다. 이런 구분은 대학 당국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입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물론 성적이 좋다고 모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에는 자기 캠퍼스와 맞는 학생을 고르는 추세다.

리치스쿨은 '드림스쿨'이라는 별칭이 있듯이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명문 사립대학과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꼽아 볼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 대학 선정은 현실이다. 너무 높은 목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입 컨설팅 전문가들은 "SAT를 빼면서 희망 대학 선정이 더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대략 10개의 학교로 줄였는데 이제는 20곳에서 30곳에 지원하기도

한다"며 "가능하다면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을 먼저 선정하고 아래 위로 드림스쿨과 세이프티 스쿨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매치스쿨이 매치되지 않고 세이프티 스쿨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시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그래도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여름방학 할 일: 대학 탐방(캠퍼스 투어)

희망 대학 중 몇 곳을 여름방학에 캠퍼스 투어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모든 대학에 갈 수 없으므로 몇 곳은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남가주 출신이라면 가까운 UC계열 대학과 옥시덴탈 칼리지, LMU, 페퍼다인, 캘텍에 가 볼 수 있다. 물론 자녀의 희망 리스트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

장병희 기자

▶6면 '킷오프'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참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참고자리 임대 9000 SF 현존, 버지니아</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사무실</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사무실</p> <p>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버블티 가게</p> <p>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판매가36만불</p> <p>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상가</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오피스, 1백1십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식당 자리</p> <p>5500 SF, 임대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p> <p>식당자리 제과점 건물매매</p> <p>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맥클린</p> <p>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p>
---	---	---	---	--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참고

투자 컨설팅
사업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참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유령신호' 먼저 잡는 능력, AI시대에도 인간 직관력 중요

(적은 모르고 아군만 아는 신호)

5월 초 평소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었던 제임스 사이먼스 박사가 별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이름일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와 통계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퀀트투자자에 관심 있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인이 남긴 전설적인 투자 수익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세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수학과를 졸업하고, 23세에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이먼스 박사는 천재 수학자였다. 그는 수학 기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오스월드 베블런 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40세에 창업한 르네상스 테크놀러지는 1988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66%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그 자신도 약 41조원 상당의 부를 이뤘으며, 말년에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공헌하는 자선사업가로 명성을 높였다.

그가 남긴 투자 수익률과 방식들은 전무후무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공 비법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필자도 그에 관한 책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가 처음 출간됐을 때 번역본이 나오기를 기다리기 어려워 아마존에서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의 펀드는 성공 보수가 44%, 수수료 5%로 높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반적인 헤지펀드의 경우 성공 보수가 20%, 수수료는 2% 수준이다. 이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펀드에 가입하고 싶어했는지 알 수 있다. 사이먼스 박사는 자신의 회사에 재무 전문가나 경제학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오직 수학자, 기상학자, 컴퓨터 및 데이터 전문가만을 고용하였다. 이는 투자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워런 버핏이 추구하는 주식의 가치분석 또는 조지 소로스가 활용하는 매크로 통찰력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천재 수학자의 전설적 투자 수익 비결

그가 어떻게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는지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 그의 인터뷰를 몇 번 보았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항상 말을 얼버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밀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오늘 그를 소개한 이유도 인공지능과 통계학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그가 많은 생각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먼저 그의 경력을 보면 가장 특이한 것은 암호 연구소 근무로,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었기에 미국에서 암호 해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는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어떻게 미세한 신호와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그가 만든 시스템의 밑거름이 된다.

기존에도 통계학과 재무 이론에 근거한 컴퓨터 트레이딩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차익 거래는 두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여 낸 후 만약 비슷한 두 채권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면 이 둘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를 한다.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이론에 따른 운용의 경우 주식가치를 분석한 후 현재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매수를 한다.



여기에도 많은 통계와 재무적 지식이 필요하며, 이것이 기존의 통계와 수학에 바탕을 둔 재무이론이다. 우리나라도 카이스트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금융 공학 관련 학과에서 이러한 학문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르네상스 테크놀러지의 투자는 기계학습의 방식과 유사하다. 기계학습에서는 이론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패턴만을 추구한다. '가치가 이렇다'든지, 두 채권의 가격이 수렴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론화시키지 않는다. 이론화에는 정규분포, 선형성 등의 가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이런 전제와 가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줬다. 기계학습에서는 다만 패턴을 찾아낼 뿐이다. 이것은 마치 숙련된 포커 플레이어와 상대방의 코 끝의 순간과 현재의 상황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코 끝의 것이 무작위 행동일 수도 있고 패턴일 수도 있다. 더 복잡하게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하여 무작위와 패턴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코 끝의 행동을 관찰하면서도 현재의 패턴만 아

니라 실내의 습도, 온도, 현재의 시간 등을 같이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론에 의한 방식과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방식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분야는 번역이다. 기존의 번역은 문법을 컴퓨터에 넣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girl' 은 단수니까 'is' 가 뒤따라야 하고 'girls' 는 복수니까 'are' 가 뒤따라야 한다는 규칙을 컴퓨터에 넣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적 기계번역에서는 수많은 문장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외우게 한다. 여기서 '수많은'이라고 한 것은 인간 한계를 벗어나는 수십억개 이상의 문장을 말한다. 그 후 어떤 단어가 나오면 현재 외우고 있는 문장에서 그 단어를 매칭한 후 문장에서의 그 단어의 위치와 다른 단어들과의 위치를 고려하여 번역해 나가는 방식이다.

타당성·근거 희박해 보이는 신호 활용

처음 이 방식이 고안되었을 때 많은 번역가들은 반발하였다. 상황에 맞는 번역도, 언어적 감각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론과 문법에 근거한 컴퓨터 번역의 미숙함에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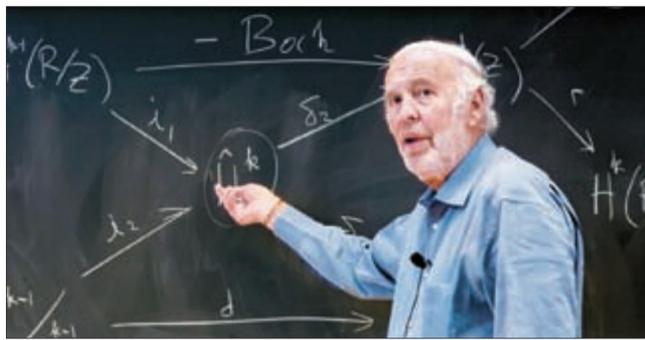
이 데이터 매칭에 의한 통계적 기계번역이 나온 후 우리는 처음으로 매끄러운 번역을 보게 되었다. 당시 이 방식의 연구 책임자가 "내가 언어학자를 해고할 때마다 시스템 성능이 발전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방식의 우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 방식은 현재 우리가 챗GPT 등에서 보는 LLM(거대언어 모델)의 단초가 되었다.

IBM에서 이 방식을 연구했던 피터 브라운과 로버트 머서가 르네상스 테크놀러지의 핵심 멤버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초기 르네상스 테크놀러지에서 중시한 것은 '유령신호'라는 것이다. 이것은 암호학에서 적지에 침투한 아군이 보내는 신호이다. 적은 탐지하지 못하지만, 아군은 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신호를 뜻한다. 이는 르네상스 테크놀러지의 운용 방식이기도 하다. 이 회사의 한 최고 임원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다. "어떤 주식을 사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우리는 신호가 발생하면 크라이슬러의 주식을 사고, 또 다른 어떤 신호가 생겨나면 그것을 판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당시 크라이슬러는 합병이 돼서 존재하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탐지할 수 있는 시장의 미세한 신호를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라야 남들보다 빠른 매수와 매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존재하는 확실한 신호에 집착할 경우 한발 늦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1월에 열리는 미국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슈퍼볼 경기에서 2015년까지 지난 54년 동안 9번만 제외하고는 내셔널리그팀이 아메리칸팀을 이기면 그해 주가가 올라갔다 (74%의 확률). 이것은 패턴일까, 우연일까? 그 후 5년 동안 이 예측은 항상 틀린 방향으로 흘렀다. 이것은 이론이 없이 패턴을 찾는 것의 위험성과 패턴과 우연성을 구별하기 어려움에 관한 설명이다.

어떤 상관관계가 보였을 때 이것이 패턴인가 우연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직관의 문제다. 또한 단순 직관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설을 통하여 교차 검증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없던 많은 데이터와 기계학습 기술을 총동원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데이터 수집, 가설, 검증,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식 획득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르네상스 테크놀러지는 자신들이 해왔던 수많은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이론적 근거가 희박한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만약 명백한 타당성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먼저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이 경계를 잘 이용했던 것이다.

작고하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트레이딩을 지적하며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으면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사이먼스 박사는 단호하게 "컴퓨터는 그냥 도구이다. 연장이 좋다고 당신이 좋은 목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연장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망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그의 삶과 통찰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제임스 사이먼스 박사가生前에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유튜브)

이준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수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갑오개혁에 가린 일본 침략주의 어두운 그림자

개항-개화-개혁 세 단어는 우리 근대사의 희망 코드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한 개항과 1884년 갑오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 10년 뒤 1894년 온건 개화파에 의한 갑오개혁 등은 근대를 향한 행진곡이자 무능한 군주 아래 활개친 세도정치의 수구를 깨트리는 서광의 역사다. 그런데 이 셋이 모두 일본과 연계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의한 국제사회로의 등장, 친일 급진 세력에 의한 친청(親淸) 보수세력 타도 시도, 온건 친일 개화파에 의한 제도 개혁 등 셋은 정교함까지 느껴지는 구성이다. 그 구성이 이루어진 과정을 뒤져보니 뜻밖에도 주역은 1인이다.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보하시 기요시는 1930년 『근대 일선(日鮮) 관계의 연구』에서 당쟁망국론의 끝판으로 고종 시대 왕비 민씨 일족과 대원군의 세도정치를 논하였다. 그 뒤 1944년 『근대조선에서의 정치적 개혁』이란 장문의 논문에서 ‘갑오개혁’을 처음 등장시켰다. 1894년 6~7월 일본군이 출병하면서 조선 정부에 요구한 ‘내정개혁’이 청일전쟁 개전과 동시에 실행에 옮겨진 것을 ‘갑오(내정)개혁’이라고 불렀다. 그는 ‘갑오개혁’의 의미를 논문 머리에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쟁의 긴박 속에 개혁 필요성을 자각한 조선 관료의 혁신 운동이 일본 정부의 전면적 원조를 얻어 (일본제국) 메이지 유신의 흥업(興業, 대업)을 본받아 500년 구제제를 타파하고 근대국가의 모습을 정비하려 기도한 사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사업은 (1895년 6월)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이한(離韓)한 뒤 버려져 15년 뒤 ‘한국병합’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한국병합을 두둔하는 식민주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개항-개화-개혁 세 가지 구도를 근본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고종, 국난 타개 위해 미국에 도움 요청
다보하시의 ‘갑오개혁’을 두 단계로 나누었다. 청일전쟁 개전 직후 7월 27일(양력) 군국기무처를 세우고 10월 중순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현 대사)가 교체될 때까지 221건의 의안(議案)을 올린 것을 ‘1차 개혁’이라고 했다. 그의 후임으로 외무대신을 역임한 거물급 정치인 이노우에 가오루가 부임하여 제시한 ‘20개 조’ 개혁안에 근거한 것을 ‘2차 개혁’이라고 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노우에 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1895년 1월 7일(양력) ‘홍범 14조’를 개혁의 근간으로 발표하고 6월 23일 이노우에 공사가 떠날 때까지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했다. 다보하시 교수의 입론은 광복 후 학계의 연구 활동 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 정설처럼 퍼졌다. 1990년 유영익의 『갑오경장연구』가 처음으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 유영익은 군국기무처의 개혁안을 분석해 “제한된 의미에서 자율적 개혁 운동이었다”라고 하여 친일 개화파 주도의 개혁이란 종래의 견해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다. 개혁안 총 221건이 모두 국왕의 재가를 거쳤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일본공사관이 판을 친 것이 아니라 국왕 중심 국정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갑오개혁’에 가린 침략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의 고찰로는 개혁 주도 11명 대부분이 1880년 통리기무아문 설립 때부터 개화 업무에 종사한 국왕의 충실한 신하들이었다. 일본공사관 측은 영의정 김홍집을 군국기무처 총재로 앞세워 조종했으나 국왕 중심의 국정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다면 고종 시대 ‘세도정치론’도 허구가 아닐 수 없다.

앞 회에서 살폈듯이 고종은 국난 타개를 위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왕정 보필에 충실한 신하들도 적지 않았다. 1884년 갑신정변 때 봉변을 당한 민영익은 청·일 양국군 출병 당시 흥삼무역 총책으로 상하이에 나가 있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압박 소식을 듣고 고종에게 저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베트남 망국의 전철을 피하라는 조언을 보내왔다.

1894년 2월(음력) 갑신정변 주동자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홍종우에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 후 4월 27일 고종은 나머지 갑신정변 연루자 전원에게 ‘대(大)사면령’을 내렸다. 그들의 해외 경험과 지식을 국정 쇄신에 활용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이 사실이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를 주목한 연구가 없다. 고종은 같은 시기 동학 농민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근본적인 국정 쇄신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청일전쟁이 터졌다.

‘대사면’ 이후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이 움직였다. 3인은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 체류 초기에 김옥균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동지들이었다. 박영효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 메이지 학원(기독교 학교) 영어과를 다니고 1888년 2월 24일(양력) 자로 왕에게 ‘건백서’란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 “갑신년의 경솔한 거사”를 후회하면서 세계정세에 비추어 조선이 나아갈 길 여덟 가지를 상



1894년 12월 8일,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고종과 민비를 함께 알현하는 장면. 『풍속화보』 정청도회(征淸圖繪) 제5편 ‘한성 잔몽(殘夢)’ 1895.1.25. [사진 이태진]

세하게 적었다. 이 상소가 고종의 국정 쇄신 의지에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박영효, 서광범은 귀국 후 ‘홍범 14조’ 내각에 내부, 법무대신으로 참여하여 일



일본 체류 중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왼쪽부터). [사진 이태진]

본공사관 측은 ‘제2차 개혁’ 요구에 대한 국왕의 탄력적 대응을 도왔다. 초대 주미공사를 역임한 박정양도 합세하였다. 고종의 개혁 방향은 미국 쪽으로 쏠려 있었다.

이노우에 공사의 ‘20개 조’는 조선이 청국 황제의 연호 대신 ‘개국기년’(1895년=개국 504년)을 쓸 것, 청국과 관계를 특별하게 하지 말 것, 신분제를 없애고 인재를 고르게 쓸 것 등을 제시했다. 고종은 1882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위안스카이의와 같으므로 청국과의 결별을 속으로 다지고 다졌다. 일본의 요구는 오히려 이를 실현할 호기였다. 신분제도 혁파에 대한 뜻을 세운 지도 오래였다. 1886년 1월 2일 노비 세습 철폐의 뜻을 밝혔다. 고종은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을 세우고 그 아래 외교와 신문물 수용 관련 12개 사(司)를 두었다. 근대화는 이때 이미 시작되었다. ‘갑오개혁’은 어디까지나 일본제국이 조선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시혜론이 만든 억지 근대화론이다. ‘2차 개혁’ 초인 1895년 2월 국왕은

백성에게 정부의 뜻을 알리는 조령(詔令)을 한문에서 국한문 혼용체로 바꾸었다. 한글을 국정 소통의 매개로 삼는 일대 변혁이었다. 새 형식의 조령 가운데 1895년 2월 26일(양력) 자의 ‘교육 조령’은 주목할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덕양, চে양, 지양 등 3양(養)의 실용 교육에 힘써 “나라의 수모를 씻을, 나라의 원한을 갚을, 나라의 정치제도를 끌어갈 ‘국민’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3양 교육은 19세기 미국 중등교육 강령으로 육영공원 교사 호머 헬버트가 고종에게 전한 것이다. (2023. 12. 23자 ‘근현대사 특강’)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각종 외국어학교, 기술학교의 설립을 명하는 조령이 뒤를 이었다. 강압에 대한 탄력적 대응의 성과로서 ‘갑오·을미개혁’이란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

능동 대응 ‘갑오·을미개혁’ 용어 바람직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는 “청국은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4월 23일 ‘삼국간섭’으로 전리품 라우둥(遼東)반도를 포기하면서 일본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5월 21일 이노우에가 적극 지원한 총리대신 김홍집이 사임하고 내부대신 박영효가 대신하였다. 고종은 6월 6일 ‘독립국’을 축하하는 원유회를 창덕궁 연경당 일원에서 열게 하였다. 일본이 명문화한 ‘자주독립국’을 기념행사로 내외에 알릴 일본도 이를 범하지 못하게 할 속셈이었다. 기자 출신 기쿠치 겐조의 『근대조선사』(1939)는 행사 일체를 부마 박영효가 지휘하게 하여 ‘박영효의 날’로 불렀다고 밝혔다. 외국 외교관 기업인 등 3000명이 모인 큰 가든파티였다고 했다. 이노우에 공사는 자신의 송별연을 겸한 이 행사 참석을 끝으로 돌아야 했다.

이노우에 공사 귀국 후 일본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박영효가 왕비를 폐하려 한다는 거짓 밀고가 궁중에 들어가 고종은 6월 23일(양력) 법부에 엄하게 조사하여 정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거기에는 체포하란 지시가 없었다. 일본 측의 속뜻을 알아채려 도피의 기회를 준 것일까. 박영효는 실제로 모함을 피한 일본공사관 측의 보호를 받으면서 출국하여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서 서재필의 귀국을 종용한다. 한 달쯤 지난 8월에 신임 미우라고로 공사는 왕비 살해의 밀명을 띠고 부임한다. 새로운 국난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임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넒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에듀 포스팅

여름방학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추천서 받기 좋고 대학 지원에 큰 도움

대학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고등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름 방학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명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여름 프로그램은 대학 지원서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이런 귀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해당 기회를 잘 활용하고 담당 멘토로부터 훌륭한 추천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대학 지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여름방학 경험이 될 것이다.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한인 학생들도 많이 지원한 COSMOS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유명하지만,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1. 과학자 및 동료와 네트워킹 하기

NASA SEES, SOSMOS, YYGS와 같은 여름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킹은 가장 가치 있는 성과 중 하나이다. 관심 분야의 과학자를 찾아 최소 두 가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강의나 패널 토론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라. 많은 권위 있는 여름 프로그램에는 지속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활발한 졸업생 네트워크가 있다. 예를 들어, COSMOS 동문 네트워크는 종종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프로그램 졸업생과 함께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독점적인 기회에 접근 하면 좋겠다.

네트워크는 NASA 과학자가 되는 길을 안내할 수 있고, COSMOS 동문은 대학 지원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또한 동료는 단순한 학급 친구가 아니라 미래 네트워킹이 기도하다.

프로그램 이후 멘토 및 동료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멘토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내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다. 멘토와 동료의 네트워크는 추천서, 인턴십, 나아가 취업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모든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모든 여름 프로그램의 혜택을 최대한 얻으려면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강의나 세미나에서 생각이 유발하는 질문을 하며 호기심과 진취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긍정적인 평판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룹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예를 들어 COSMOS에서 동료와 협력하여 STEM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전문가 패널에게 발표하면 팀워크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여름 경험을 문서화하기

프로그램 동안 일기나 블로그를 작성하면 일상의 도전 과제, 돌파구,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다. 여정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나중에 대학 에세이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귀중한 기록을 제공할 것이다. 여름 연구 여정을 기록할 때 경험의 주요 측면을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 보자.

▶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얻었으며, 그것이 전공과 어떻게 연관되었나?

▶ 프로그램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어떤 도전에 직면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나?

▶ 배운 것을 미래의 학문적, 개인적 추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4. 배운 것을 반영하고 적용하기

프로그램 후에는 경험을 되돌아보고 배운 것을 적용할 시간을 가지자. 철

저한 자기 평가를 통해 개선할 부분을 식별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추가로 개선할 방법을 고려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학교 과제, 교외 활동, 연구 프로젝트에 활용한다. 여름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대학 에세이나 인터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학문적 관심과 개인적 성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강조하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발표력과 과학자 및 동료와 네트워킹하기 의사 소통이 쉬운 학생들에게 더 잘 맞는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수변 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커리어 코칭

대학 결정 시 부모의 역할에 선 그어야...학교 선택 압박 말고 비용 충분히 상의

2024년 가을학기 명문대 입시결과 발표가 모두 끝났다.

이제 12학년생들은 합격한 대학에 따라 오는 5월1일, 5월15일, 또는 6월1일까지 진학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각 대학의 장단점과 재정보조 패키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어느 학교에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느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를 둘러싸고 자녀와 부모 간에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부모가 보기에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된 결정은 대학에 진학할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자녀가 대학을 결정할 때 부모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첫째, 자녀가 특정 대학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학에 다닐 사람은 부모가 아닌 자녀 입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가 좋아하는 대학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녀가 대학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할지에 가치를 뒀다 한다.

대학 로고가 찍힌 티셔츠나 재킷, 야구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녀가 원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문화가 특정 대학에 존재한다면 단지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이유로 다른 대학을 강요하지 말라.

둘째, 내 아이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한인 부모들은 아이의 대학 입시 결과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한다. 아이의 친구, 부모 친구의 자녀, 또는 친척의 아이와 쉽게 비교한다. 어떤 집 아이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했는데 우리 아이는 인스테인트 주립대만 합격했다며 고개를 떨군다.

모든 학생은 고유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대학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며,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 할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셋째, 재정보조 패키지를 대학 별로 비교한다. 대학 비용은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는 규모이다. 그러므로 합격한 대학이 제안하는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부모가 제대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틈에이지 학생들은 재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랜트 또는 장학금을 얼마나 받는지, 용자를 받거나 워크스터디로 벌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될지, 졸업 시점에 용자 액수는 얼마가 될지 부모가 대학별로 비교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은 워크스터디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학생 식당과 스포츠센터로 제한하는 반면, 어떤 대학은 교수와 리서치를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리서치를 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넷째, 대학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자녀와 상세히 의논한다.

해당 경비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지 일찌감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자세한 내용을 알면 스칼라십, 그랜트, 용자, 워크 스테디 프로그램 등 가능한 모든 옵션을 찾아보고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일찍 이런 대화를 나누어 부모와 자녀가 적절하게 대비하고, 대학에 지원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때도 경

비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대학생 중 상당수가 적잖은 금액의 학생 용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졸업했다.

다섯째, 학업적 기회에 대해 알아본다. 학생들은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학들에 대해 리서치를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각 대학의 전공과 부전공, 수업, 교수진, 리서치 기회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원하는 전공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이가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싶어한다면 여러 대학 중 가장 엔지니어링이 강한 곳을 고려할 것이다. A 대학은 전체적인 명성이나 랭킹이 B 대학보다 높지만, B 대학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유난히 강할 수 있다. 아너스 프로그램 같은 특별 프로그램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아너스 칼리지'는 아너스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이는 보통 규모가 큰 공립 대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빈센트 김·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레버쿠젠 해냈다 분데스리가 첫 '무패 우승'

레버쿠젠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사비 알론소(스페인)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18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최종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 2-1로 승리했다.

12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한 바이에른 뮌헨을 일찌감치 제치고 1904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확정짓는 레버쿠젠(승점 90)은 이날 승리로 무패 우승(28승 6무)까지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시즌으로 마무리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팀은 없었다.

레버쿠젠은 지난 1904년 제약회사 바이엘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창당한 기업구단이다. 다섯 차례나 준우승에 그치면서 '네커쿠젠(Nekerkusen·절대 우승 못하는 팀이라는 조롱)'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올 시즌 불명예를 확실하게 날려버렸다.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를 놓고 봐도 무패 우승은 드문 기록이다. 2000년 이후로는 2003~04시즌의 아스널(잉글랜드)과 2011~12시즌의 유벤투스(이탈리아) 뿐이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공식전 5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다. 42승 9무로 개막 후 아직도 패배가 없다.

이날 승리로 유럽클럽대항전 출범 이래 공식전 최다 연속 무패 기록도 자

체 경신했다. 레버쿠젠의 도전은 계속된다. 올 시즌 최대 3관왕까지 가능하다. 독일축구협회(DFB)포칼 무대에 서 결승에 올라 있다. 오는 26일 카이저슬라우테른(2부리그)을 꺾는다면 1992~93시즌 이후 31년 만에 이 대회에 정상에 선다. 레버쿠젠은 23일 아탈란타(이상 이탈리아)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도 결승전만 남겨뒀다.

한편 뮌헨(승점 72)은 호펜하임에 2-4로 패하며 뮌헨글라트바흐를 4-0으로 대파한 슈투트가르트(73)에 2위마저 내주고 3위로 시즌을 마쳤다. 뮌헨의 중앙수비수 김민재는 결장했다. 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 **피주영 기자**



레버쿠젠이 19일 아우크스부르크를 몰리치고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AP·연합뉴스]



연예인 시키기만 하더니 생고생 직접 나선 PD들

PD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PD로그'. [사진 EBS]

한겨울보다 차갑다는 3월의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 로프 두 줄에 의지해 7층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로프공...

이른바 '극한 직업'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은 그간 많이 있었다. PD와 작가 등 제작진은 그 고된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관찰자였다. 카메라 뒤에서 출연자의 생고생을 지켜보던 PD들이 이번엔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극한 체험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6일 첫 방송한 'PD로그'는 EBS PD들이 직접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노동의 가치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다. 3~13년 차 PD 7명이 제작각 경험한 직업 노동기를 15부작에 걸쳐 선보인다.

'PD로그'가 방영되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55분은 원래 EBS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큐프라임'이 편성됐던 시간대다. EBS로서는 PD를 전면에 앞세운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채널의 황금시간대에 편성한 셈이다.

'PD로그'는 'PD가 브이로그(V-log·일상을 기록한 영상)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지

극한직업 체험 EBS 'PD로그' 해녀·빌딩외벽청소·요양보호사 3~13년차 PD 7명이 직접 출연

난 9일 경기도 고양시 EBS 사옥에서 만난 'PD로그'의 이동운(38)·정석희(38)·황신록(28) PD는 회사로부터 처음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을 듣고선 난감했다고 떠올렸다.

9년차 정 PD는 "연예인도 아닌데 왜 카메라 앞에 서야 하고, 시청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다"고 말했다. 1화 해녀편을 촬영한 정 PD는 "조연출 없이 제가 직접 고프로를 들고 찍거나 작가가 핸드캠으로 촬영한 것이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했다.

로프공에 도전한 이 PD는 "고수의 일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고층 빌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5~10년 넘게 업으로 삼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황 PD는 "촬영 분량은 3~4일이면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일에 대한 희로애락을 더 깊이 담아내고 싶어 일주

일 간 일했다"고 했다.

"요즘 사람들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이거 안되면 다른 거 하지' 이렇게요." 'PD로그' 해녀편에서 60년 가까이 물질을 해온 해녀는 이 같이 말한다. 이 PD는 해녀의 말에 느끼는 바가 컸다고 했다.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언제까지 PD를 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흔들리는 시간"이라며 "PD 일이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건 '명의' '세계테마기행'처럼 대중의 마음이 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D로그'가 첫 프로그램인 3년차 막내 황 PD는 "입사 후에도 업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유튜브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보지만, 방송국 PD로서 할 수 있는 콘텐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고민의 결론이다. 중견에 접어든 정 PD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위기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유튜브 콘텐츠와 달리, 덜 자극적이지만 의미 있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어환희 기자

▶ 1면 '킵오프'에서 이어집니다

물론 부모 중에는 자녀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11학년에서 12학년에 다가서는 시점에서의 동기부여는 의미가 없다. 동기 부여는 9학년이나 10학년때에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자녀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입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LA 인근 지역에 대한 탐방이 끝나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대학에도 가본다. 아울러 여유가 된다면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도 가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는 관광도 가지 마라. 시간낭비다. 예를 들어 동부 대학 중 자녀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본다. 만약 NYU에 관심이 있다면 가족 여행으로 뉴욕을 택하고 그 일정 중 하루를 NYU에서 머무는 것으로 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학교를 가봐야 배우는 것도 있고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 그저 가

족들의 만족을 위해서 보스턴의 대학을 찾아가는 일은 피하자.

▶ 여름방학에 할 일: 에세이 쓰기, 추천서

희망 대학 선정과 함께 여름방학에 해야 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에세이 작성이다. 공통 지원서(common app)에는 공통 에세이와 학교마다 추가 서류, 추가 에세이가 있다. 희망 대학에 맞춰서 주제를 미리 파악하고 여름방학에 대략 작성해 놔야 한다. 그래야 프루프라이딩도 가능하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추천서를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지도 방학에 생각해 둬야 한다. 누가 자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한다. 막상 8월 개학 후에는 이런 작업이 쉽지 않다.

▶ 과외활동

12학년을 앞둔 시점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즉, 과외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학생들의 얼굴과 경험이 모두 다르듯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물론 12학년이 되는 여름방학에 시작한 과외 활동이 입학 사정관에게 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4년 간 해온 활동에 점수를 더 준다. 하지만 3년간 해온 액티비티가 2개 뿐이고 몇 칸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빈 칸보다는 한 줄이라도 적어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1만 달러를 내고 스텐포드에서 운영하는 서머캠프에 참가하는 것이나 친구들과 간단한 등산 클럽, 하키 팀 모임 만들어서 이를 써넣는 것이나 한 줄 채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3개가 다른 액티비티라고 해도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저런 것이라도 해서, 비록 활

동하지 않더라도 빈칸으로 놔두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빈칸 채우기용 '엑스트라' 액티비티도 에세이에 남기면 된다. 에세이 쓸 때 반영할만한 활동으로 여름방학에 열심히 노력하게 하라. 12학년이 됐다고 과외 활동이 적다고 입시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UC만 해도 과외 활동을 학생을 고르는 변별력에 넣는 경우가 많다.

▶ SAT 성적 대책

SAT 성적의 중요성은 감소할 필요도 없다. 학교 성적과 SAT 성적, 액티비티가 꼽히는데 SAT는 다른 두 가지와는 달리 자기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읽고 크리티컬 리딩이 되면 SAT에서 고득점 한다. 그런데 대입 킵오프에서는 모두 지난 과거사일뿐 당면과제가 아니다. 만약 SAT 점수가 잘 안 나왔다면 자녀와 상의하여 공부방법이나 학원을 바꿔보자.

장병희 기자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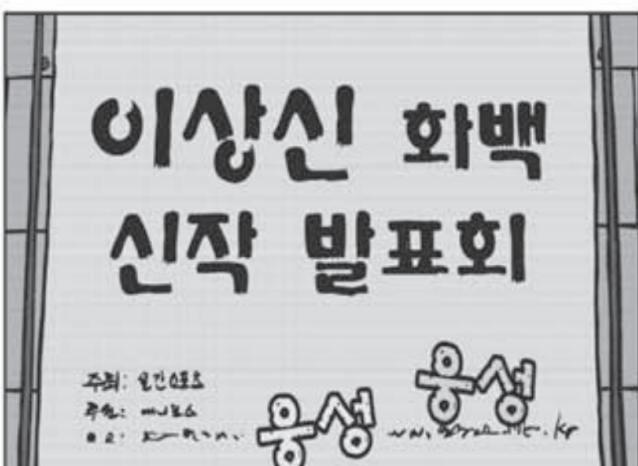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예술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
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 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아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경험 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 ~ 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작업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시간: 주 48 ~ 52시간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직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스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플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엘리엇 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워싱턴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703-798-7270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니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중앙일보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엘트레이션>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수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파크웨이
연락처: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트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윈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트타임/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러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빙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상통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위상통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우드.
202-271-2726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 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 301-385-3535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소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리앙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 은행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 싱글홈 2층 방렌트
취사가, 즉시입주가
703-732-9153

센터빌 뉴 싱글하우스 자하방 2개, Full Bath
703-508-7743

Fair Oak INOVA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방 렌트. Rt. 50, 286, H-mart
가까운 곳.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남자/금연자 환영.
571-236-0834 (Mrs. Roh)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렌트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취사가는.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완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넬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사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아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몰 부근 싱글홈 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넬데일 K마트 뒤 싱글 홈 방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뒷뜰 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렌트, 홈도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시니어(장애인)의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물건 거래 사례

- ▶ 1층 주택 (Ground Level)
\$490,000 ~ \$570,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대지 0.3에이커 텃밭 (No HOA)
- ▶ 콘도 (Main Level)
\$300,000 ~ \$370,000
방2, 화2 / 1,000 ~ 1,200 SF, 주차 편리한 곳
저렴한 콘도피 (\$350 내외, Water & Trash 포함)

- ▶ 골프장 커뮤니티 Luxury House / Condo
\$510,000 ~ \$600,000
방3(2), 화2, 1 Garage Gate Community
55+ Senior
- ▶ 근린, 전원생활, 주말농장
\$350,000 ~ \$650,000
도심으로부터 30분 ~ 1시간 근린 생활권,
대지 1에이커 이상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장,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장 1/2, 1, 612sq. ft.,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장 2.5, 0.30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장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장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영원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장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장 2개, 현관 리빙룸/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버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특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매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i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매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일터에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힐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속속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춘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샅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19년 커머셜 Ford 450/110,000마일/\$55,000
301-751-1631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 sizing)세일
- treadmill & bike machine \$100
- 세라젼 \$100 - 3bikes \$100
- tools \$100 - living room set \$300
문의: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10,000/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트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 도자기 꽃병(4세트) \$100
-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허리 운동하는 꾸꾸리 \$50(사용설명서)
240-477-3232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240-796-0093 (따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박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프코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하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구독신청 : 703-281-9660,1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전기 공사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용자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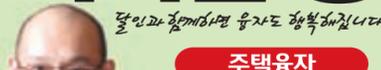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 dc.thekoreadaily@gmail.com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ger: (holding up a baseball jersey) Excuse me does this come in large?
 로저: (야구복 웃옷을 들고) 여기요 이거 큰 사이즈로 나오나요?
 Salesman: Yes it does.
 세일즈맨: 네.
 Roger: I looked but I couldn't find a large.
 로저: 찾아봤는데 큰 사이즈가 없던걸요.
 Salesman: (searching the shelf) I'm sorry. I guess we're out of large.

세일즈맨: (선반을 찾아보며) 죄송해요. 큰 사이즈가 다 팔렸나보네요.
 Roger: Can I order one?
 로저: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Salesman: We'll be getting more in next week.
 세일즈맨: 다음 주면 더 들어올 겁니다.
 Roger: Would you hold a size large for me?
 로저: 저를 위해서 큰 사이즈 하나 따로 놔두어주실래요?
 Salesman: Sure, I'll just need a telephone number

to call you when they come in.
 세일즈맨: 물론이죠.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 물건 들어오는대로 전화해드릴게요.
 Roger: Thank you.
 로저: 고맙습니다.
 Salesman: Here's a card for you to write your phone number on.
 세일즈맨: 여기 이 카드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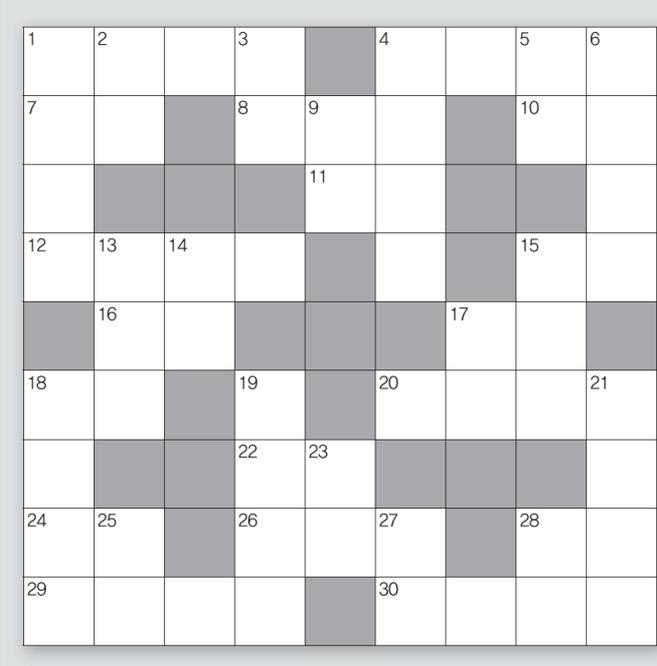
does this come in~?; 이 물건이~사이즈로 나오나요?

(Roger is shopping in a sports store~)
 (로저가 운동구점에서 쇼핑하고 있다~)

기억할만한 표현

- ▶ (one) is out of (something): ~가 다 떨어지다
 "We're out of ice. We have to buy more."
 (얼음이 다 떨어졌어요. 더 사야겠어요.)
- ▶ hold (something) for (someone): ~를 위해 ~를 맡아두다
 "Would you hold these shoes for me until I come back in about an hour?"
 (한 시간 후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신발좀 맡아주시겠어요?)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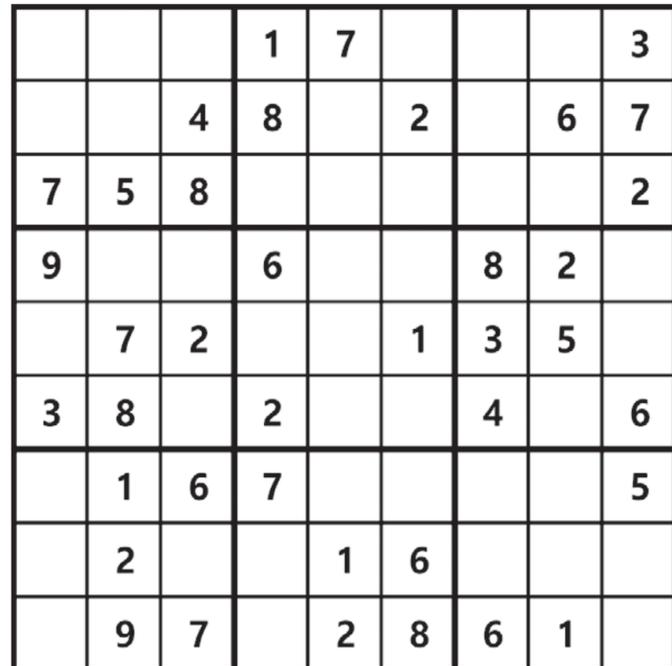
가로열쇠

(1)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4)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열사. □□□□ (7)아기를 갖 낳은 여자 (8)소금에 절인 무를 썰겨 등에 파묻어서 발효시킨 음식 (10)늘 천하게 어울리는 사람. 벗. 어깨~ 씨~ 미나리밭에 앉았다/~ ~ 씨~ 보리가 나도록 씨~ (11)겨냥한 곳에 바로 맞음 (12)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상스러운 이야기 (15)영양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값이 싸서 많이 애용되는 생선. 과메기를 만들죠 (16)술을 끊음 (17)형제자매 중 나이가 적은 사람. 아우 (18)누이의 아들 (20)대가나 보상 없이 거저 도와줌 (22)대학교 선생님 (24)붓의 뾰족한 끝. 글을 써 내려가는 기세. 칼날같이 예리한 ~을 휘둘러 그들의 침략 행위를 규탄했다 (26)어떤 활동의 터전으로 삼는 중요한 장소 (28)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이날 팔죽을 쑤어 액운을 쫓는다 (29)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 일함.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의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봉□ (30)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 임금이 있는 대궐 안. □중□□

세로열쇠

(1)몸을 추켜올렸다 내렸다 하며 걷는 걸음. □□걸□ (2)어머니의 자매 (3)잡쌀이나 찰수수가 루를 받들만 하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고물을 묻혀서 만드는 떡 (4)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5)남을 부추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 (6)무가 작고 가늘지만 대가 굵고 푸른 잎이 많아 여름 내내 담가 먹는 김치 (9)숨을 자아 만든 실로 짠 옷감 (13)고온으로 가열한 금속 재료를 물에 넣어 급격하게 식히는 일 (14)조개껍데기를 닫기 위한 한 쌍의 근육. 조개관자 (15)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소견이 좁은 사람 (17)살갗이 얇아서 조식이 상하는 일 (18)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 □자□□ (19)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함. 원□□□ (21)지계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 □강□□ (23)거두어 감 (25)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 (27)우주에서 봤을 때 푸른색의 바다와 녹색의 산, 갈색의 흙에 흰색의 구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행성 (28)어린이의 마음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유명한 비즈니스 비처가
 선글라스 안경+잡화
 전망좋은 장소에서
 삶을 찾아보세요
 부부적합 가 15만(Inv 포함)
 (310)266-8086

Senior Manager:
 Manage sales strategies and
 operations: Bachelo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Kumho Tire U.S.A., Inc.,
 133 Peachtree St. NE, Ste. 2800,
 Atlanta, GA 30303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수영장 청소권 매매
 팔로스버디스/토렌스
 (818)926-2095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지면 헛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터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매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홈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들과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행복한 사연 꼭 보세요 이메일: YP518119@gmail.com Tel. 714-733-3206 "카톡, 텍스트 메시지, 전화는 삼가합니다 Dr 박"
 돈은 은행에 있다고 사업이 아니지요. 보관과 예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관되고 있는 동안 유이트 메디칼 그룹 병원 닥터 박입니다. 본인일도하고 당신 돕고 하는 저의 계획은 10만불 2500불, 20만 5000불을 매달 드릴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없이 은행에 돈이 있고 1원도 남에게 주지않고 추라스트 구좌로서 은행에 보관하며 당신이 언제든지 찾아갈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법으로 단단히 지켜줍니다. 한국에서도 ok 특히나 유학생및 노인은 자기돈 은행에 잘 보관하고 저가 돕는 돈으로 공짜로 몇배 행복한 생활하시면서 살다가 원금을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자식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데 받는것 좋으나 부모를 돌본다는것 그들은 가난해요 효도 없어요. 또한 10만불로 사업하세요. 돈은 가지고 있고 매달 2500불 행운입니다 1밀리언 되면 10명 되면 접겠습니다. 서로 이런일이 진행되면 집과 돈을도우려 합니다. 모두 모이면 40일후 매달 저의 구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10만 예금 시 \$2,500 매년 \$2.5만 \$20만 예금 시 \$5,000 매년 \$5만 \$1밀리언 예금 시 \$25,000 매년 \$25만
 보통 은행 예금처럼 아무때나 원금 찾아가면 됨(계약 없음) 주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임 학생, 노인등등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준비된 자에게 돕는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자에게는 행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며, 사기도 아니고 마음 믿어준것이 감사함입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가정이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MD의사입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더 나은 생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행복을 주교자 합니다.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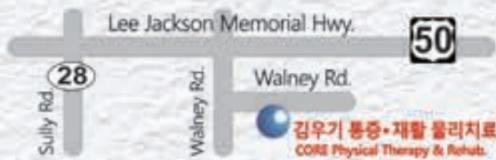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